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HEALTHY CHURCH GROWTH WITH REVITALIZATION OF THE
SMALL GROUP MINISTRY IN A KOREAN AMERIC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DALLAS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ILLSOO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il Kim


Jeong-Kii Min


Jin Ki Hwang

April 9, 2014

**HEALTHY CHURCH GROWTH WITH
REVITALIZATION OF THE SMALL GROUP
MINISTRY IN A KOREAN AMERIC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DALLAS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ILLSOO KIM

APRIL 2014

미주한인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활성화 방안:
달라스충현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김 일 수

2014년 4월

Abstract

Healthy Church Growth with Revitalization of the Small Group Ministry in a
Korean Americ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Dallas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Illsoo Kim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ways to promote small group ministry in order to build a healthy and growing church. A healthy church needs to allow lay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ministry as coworkers of the pastor in order for the church to experience authentic growth. Such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aity can be maximized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is paper intends to overcome the decline of the modern church by its experiencing revival through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 ministry.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examines the biblical basis and principles of small group ministry.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small group ministry that is firmly based on biblical teaching, it studies practical examples from the Old and New Testaments.

Chapter 3 demonstrates the absolute need for small group ministry in church growth and revival today. It asserts that small group ministry should be the purpose of a church, not a means. Small groups should meet for a definite calling and mission, rather than a mere social gathering; they should never be put aside as an ornament of a church, but be treasured as the core of the church.

Chapter 4 emphasizes three vital prerequisites for developing small group ministry successfully. First, the local pastor should be equipped with a biblical vision and understanding of small group ministry. Second, the pastor should share his vision with congregation. Third, the pastor should systematically develop

leaders who will be committed to the small group ministry.

Chapters 5 and 6 examine the author's own church, Choong-Hyun Presbyterian Church in Dallas, Texas. After assessing the history of the church as well as its current situation, the author applies the studies developed in this paper to the Choong-Hyun Presbyterian Church and suggests ways to revitalize small group ministry in a Korean American church.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D
Jeong-Kii Min,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플러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교회 성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얻는 것보다도 더욱 값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교회이기에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교회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한지 벌써 10년, 더 이상 논문을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정성껏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이신 김선일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본 논문을 쓸 수 있는 사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얻게 한 한국과 미국에서 섬긴 교회들과 현재 섬기고 있는 충현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논문이 단지 학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이는 본 논문이 나올 수 없었기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특히 부족한 저를 유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진대식 장로님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내조해준 사랑하는 아내 하희남 사모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김일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목표	7
제 2 장 소그룹의 성경적 기원	10
제 1 절 소그룹의 기원	10
1.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10
2.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만드셨다.	11
제 2 절 성경 속의 소그룹의 실례	12
1.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사역의 실례	13
가. 모세가 조직한 소그룹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13
나.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12지파	14
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	14
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건설 (느헤미야3:1-32)	15
마. 에스라의 수문 앞 광장 소그룹 (느헤미야 8장)	16
2.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사역의 실례	17
가.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	18
(1) 12제자 사역에 나타난 소그룹	18
(2)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난 소그룹 (마가복음 6:30-44)	21
(3) 70인 제자 파송에 나타난 소그룹 (누가복음 10:1-20)	22
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소그룹 사역	24
다. 초대교회 소그룹의 다섯가지 사역	24
(1) 예배	25
(2) 제자양육	25

(3) 섬김과 봉사	26
(4) 성도의 교제	27
(5) 복음전도	28
제 3 절 성경적 소그룹의 특징	29
1. 언약 공동체	30
2. 사명 공동체	30
3. 가족 공동체	31
제 3 장 왜 소그룹 목회여야 하나?	32
제 1 절 소그룹의 중요성	33
1. 소그룹의 정의	33
2.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	35
가. 소그룹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36
나. 소그룹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이다.	37
다. 소그룹은 교제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이다.	38
라. 소그룹은 일(Doing)이 아니라 존재(Being)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39
마. 소그룹 목회와 교회부흥의 중심이다.	40
제 2 절 소그룹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41
1.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41
가.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42
나. 하나님이 소그룹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43
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44
라. 소그룹은 성경적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45
마. 소그룹은 시너지작용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46
바.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47
사. 소그룹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49
2. 소그룹의 구성요소	51
가. 성도의 교제	52

나. 은사 개발	52
다. 사역 개발	53
3. 소그룹의 파워	53
가. 교회가 다양성과 일치성을 가지게 한다.	54
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	55
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56
라.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56
마.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57
바. 목회자가 신나게 목회하게 된다.	57
제 3 절 교회 내의 소그룹과 대그룹의 관계	58
1. 교회 내의 소그룹 종류와 그 기능	58
가. 지역으로 나누어진 소그룹	58
나. 사역을 위해서 모인 소그룹	59
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모인 소그룹	59
2. 소그룹과 대그룹의 차이점과 상호작용	60
가. 예배를 위한 대그룹과 성도의 교제를 위한 소그룹	60
나. 목회자 중심의 대그룹과 성도의 상호관계 중심의 소그룹	61
다. 대그룹은 영적인 것에 관심 소그룹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관심	62
라. 대그룹은 설교로 교육 소그룹은 훈련과 양육으로 교육	62
제 4 장 교회 내의 소그룹 개발을 위한 연구	64
제 1 절 소그룹 개발	64
1. 소그룹 개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	65
가. 목회자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인식	66
(1)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다.	66
(2) 소그룹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67
나. 목회자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	67
(1)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자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기	69
(2)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69

(3) 비전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기	70
2. 소그룹 개발과 활성화	72
제 2 절 소그룹 사역을 위한 단계별 전략	72
1. 전교인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한 교육	73
가.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한 교육	73
나.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사역 세미나	73
2. 평신도 소그룹 사역자 세우기	73
가. 소그룹 리더 선출하기	74
나. 소그룹 리더의 자질	75
다. 효과적인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단계	77
라. 소그룹 리더 훈련 내용	78
(1) 말씀	78
(2) 기도	79
(3) 소그룹 모임의 원칙	79
(4)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	80
(5)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면서 주의 사항	81
(6) 소그룹 사역 헌신서 만들기	82
제 3 절 소그룹 사역 시작	84
1. 소그룹 사역을 교회의 중점사역으로 선포하고 중요성을 교육한다.	84
2. 소그룹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한다.	84
3. 소그룹 리더의 첫 소그룹 모임	85
가. 리더는 자신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소개한다.	85
나. 그룹원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85
다. 소그룹 이름을 짓는다.	85
라. 소그룹 사역을 위한 일꾼들을 세운다.	86
마. 소그룹 모임의 순서와 내용을 소개한다.	86
바. 소그룹 모임에 대한 보고를 담임목사에게 한다.	86

제 5 장 소그룹 사역을 위한 미주 한인교회 이해 연구	88
제 1 절 미주지역 이민 한인교회 이해	88
1. 미주 한인들의 종교성향	89
2. 미주 한인교회 이해	90
3. 이민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93
가. 이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공하려는 마음이 있다.	93
나. 외국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94
다. 인종 차별에서 오는 힘든 과정을 신앙심으로 극복하려 한다.	94
라.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다.	95
마. 이민자로서 주류 사회로의 적응과 편입을 위해서이다.	95
바.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96
4. 이민교회에 효과적인 목회전략은 무엇인가?	96
제 2 절 미국교회 소그룹과 한인 이민교회 소그룹의 관계 연구	97
1.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공통점	98
가.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있다.	98
나. 그룹원의 숫자가 비슷하다.	98
다. 소그룹 모임의 형태와 횟수 그리고 시간도 비슷하다.	99
2.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차이점	99
제 6 장 소그룹 사역을 통한 달라스 충현장로교회 성장 연구	101
제 1 절 달라스충현장로교회 분석	101
1. 달라스 지역 한인사회 분석	101
2. 충현장로교회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103
3. 충현장로교회의 당면 과제	104
가.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사역이 필요하다.	104
나. 지금까지 부흥을 위한 전략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05
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05
라. 이민사회에 도전과 희망을 주는 교회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106

제 2 절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사역 활성화 방안	106
1. 교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106
가. 주일예배 설교를 통한 교육	106
나. 세미나를 통한 소그룹 사역 교육	107
2.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전략	109
가. 소그룹 리더 발굴	109
(1)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	110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신앙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	110
(3) 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성도	111
(4) 다른 성도들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111
나.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	111
(1) 리더의 사명감	113
(2) 소그룹 인도법	114
(3) 성경공부 인도법	114
(4) 중보기도 훈련	114
(5) 리더십 세미나	115
(6) 리더의 마음	115
(7) 상담기술 교육	116
(8) 예비리더 세우기	116
다. 소그룹 리더 훈련 방법	117
(1) 리더 수련회	118
(2) 리더 집중훈련	118
(3) 리더 훈련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118
(4) 선진교회 탐방	118
제 3 절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사역 시작	119
1. 소그룹 사역 시작을 위한 계획	119
가. 전교인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예배로 시작한다.	119
나. 소그룹 리더들에게 공식적인 교회의 권위를 부여한다.	120

다. 소그룹 리더와 그룹원들을 공식적으로 조직해 준다.	120
라. 소그룹 모임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모임 내용을 소개한다.	120
2. 소그룹 사역의 첫 모임	121
가. 소그룹 첫 모임 장소와 시간을 후보에 공고한다.	121
나. 소그룹 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마치도록 한다.	121
다. 소그룹 모임은 교회가 정한 형식을 지켜서 진행한다.	121
 제 7 장 결 론	 122
 부 록	 129
부흥전략 세미나 제1강 강의안 (학생용)	129
 참고 문헌	 134
 Vita	 138

표 목 차

<표 1> 대그룹과 소그룹의 차이점	60
<표 2> 소그룹 서약서 샘플	83
<표 3> 미주 한인들의 종교 성향	90
<표 4> 한인 2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시기	92
<표 5> 한인 2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92
<표 6> 소그룹 사역을 위한 부흥전략 세미나 커리큘럼	108
<표 7>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 커리큘럼	112
<표 8>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 필독서	113
<표 9> 소그룹 사역 시작을 위한 계획	119

그림 목차

<그림 1> 광야에서 12지파별 배치도	14
<그림 2>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15
<그림 3>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	36
<그림 4>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42
<그림 5> 소그룹의 3대 구성요소	52
<그림 6> 소그룹 모임 시간 배정	80
<그림 7>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방법들	11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의 성장을 자랑하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교회역사를 부흥과 성장의 역사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 이 성장을 계속 유지하며 더욱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희망이었고 앞길을 비추어주는 선각자의 자리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회에 실망을 주었고, 급기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는 한국 내의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민을 가서 세워진 해외 한인 이민교회들도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볼 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¹⁾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이민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깊이 연구해 보고자한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열쇠를 말하라면, 교회 내의 소그룹의 성경적 활성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열쇠를 말하라면 그 또한 교회 내의 소그룹의 건강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성장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가듯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을

1) 이상명, “사도 바울, 로스앤젤레스에 가다: Paul’s Theology and Contextualization Theology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31.

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하신다. 교회가 성장해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이 고정되거나 굳어져서는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교회든지 밖으로 성장하는 일보다는 건물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모아진 것은 모두가 오로지 '교회' 안에만 있도록 붙잡고 있으며, 선교와 전도를 하기에 앞서 건축에 열을 올리며, 그 건물을 '거룩한' 기능 외에는 어떤 다른 일에도 사용하지 않고 사면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 수로써 영적 깊이를 재는 그런 교회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거의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교회이다.²⁾

하워드 스나이더의 말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인 성장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왜 성장해야하며, 어떻게 그 성장한 교회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마치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했지, 번 돈을 어떻게 사회를 위해 환원해야하는지는 모르는 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국내이건, 국외이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진단해보면서 과연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앞으로의 시대에 희망과 비전을 주는 교회로 나아갈 길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언제나 그 시대에 앞서서 그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분명히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일제 치하 속에서 민족을 이끌었고, 6.25 전쟁과 그 이후 시대에도 민족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2) 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기계 문명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구조는?* (*The Problems of Wineskins: Church Structure in Technological Age*),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87.

진단하는 결과들은 참으로 우리를 낙담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은 그 힘을 잃고 있다. 아니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 어떠한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르게 직시할 때, 오늘의 교회의 사명과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 교회가 사명과 비전을 잃은 것도 교회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듯이 회복하는 것 또한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참으로 세계 속에서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건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만해진 것과 건강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³⁾ 비만은 도리어 건강에 치명적임을 현대 의학은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분명 한국교회는 몹시도 비만해 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비만해진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세속주의와 성공 병에 걸린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그 영적인 힘을 상실해 갔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변화되었으나 내적이고 영적인 능력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가건적인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불가건적인 참된 교회는 약해져 갔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중세 로마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며 기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세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심지어 비성경적인 방법들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도입했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교회인 성도를 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중세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올바른 성경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단지 교인들에게 의무만을 강조했을 뿐 그들이 왜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는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폐허가 되어 버린 유럽의 교회들이 되었다. 오늘날 유럽에 가건적인 교회는 있으나, 불가건적인 교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타깝게도 교회당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예배드릴 성도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말에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Juan Carlos Ortiz, *제자입니까? (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2002), 113-125.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계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감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한국교회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⁴⁾ 약 100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성장은 참으로 경이롭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박승로 목사는 그의 책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소그룹 단위의 새로운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소그룹의 특성을 살리며 살아 있는 교회의 세포로서, 형식적 조직이 아닌 책임 있는 사역의 장으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 형태로의 전환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⁵⁾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바른 성경적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기업인들처럼 대형교회만을 추구하기 전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건강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다. 대그룹중심의 사역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거나 양육하기가 불가능하다. 작은 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회의 조직을 소그룹 단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쇠퇴하고 늙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젊고 활기찬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몸부림쳐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쉽게 그 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24.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를 놓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불신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5)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14.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 내의 건강한 소그룹모임을 그 해법으로 말하고자 한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한 질적이며 영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교회를 그 목적으로 하여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내에 소그룹의 조직들을 가지고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다락방, 구역, 성경공부모임, 취미활동모임, 전도회모임 등이 있다.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그 존재가치가 미미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직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회의 건강한 사역과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느냐가 연구과제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를 전후해서 급성장을 하였다.⁶⁾ 그 성장의 원동력은 대규모의 전도 집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쉬움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이들의 사후 양육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도 훈련과 전도훈련들은 있었으나 요즘 말하는 제자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교회들은 저마다 성도들을 참된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고자 힘을 쏟았다. 제자훈련에 있어서 모토가 되는 성경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일 것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⁷⁾ 제자훈련이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 초기에 이 훈련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22-23.

“알렌과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한국에서 1884년 선교를 시작한 이래 첫 개심자를 얻은 것은 2년 후인 1886년이였다. 그로부터 거의 일 세기가 지난 1983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약 60만 명의 신자가 증가하였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교회는 매년 13-1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 왔는데, 이는 인구 증가율 2퍼센트보다 600-700퍼센트 앞서는 것이다.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연간 4,000여 개의 교회가 생겨나서 하루 10개꼴로 새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7) 한글개역개정성경.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개정성경을 따른다.

무엇 때문에 제자훈련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면, 제자훈련의 이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제자훈련하면 당연히 담임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성도들을 훈련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서 밤낮을 뛰면서 훈련에 전념을 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겠는가? 그 훈련이 열매를 보기도 전에 목회자가 탈진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음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소수의 목회자가 대중에게 신앙 훈련을 일대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소수의 12명에게 그의 제자 훈련을 집중했는데, 어찌 목회자 혼자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교만이며, 오만일 것이다.

목회자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한 사람에게만 맡긴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평신도들과 나누어 감당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들이 대그룹의 교회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소그룹의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교회 내의 소그룹들이 보다 건강하게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성장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 성장으로 목회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가진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사역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성장의 비결이었다.

현대교회에서 소그룹운동은 교회성장과 부흥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은 목회사역 전반에 걸쳐서 참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의 결여와 잘못된 소그룹 운영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가 하면, 소그룹의 장점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개러스 W. 아이스노글은 그의 책에서 소그룹 사역을 위한 구약과 신약의 모범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⁸⁾ 단순히 하나의 유행하는 교회성

8)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장의 방법으로서 소그룹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관계중심의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는 새롭게 역동적으로 바뀌어 가야함을 강조한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소그룹 모임을 단지 기능적인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의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연결된 가족들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교회들은 가족이란 의미보다 집단이란 의미가 많이 있다. 대형교회들은 1,2,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교회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는 소그룹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으로서 소그룹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다. 초대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교회의 모임은 사랑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 3 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경적 참된 교회 상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초대교회는 소그룹사역이 왕성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훈련을 한 것은 설교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소그룹형태로 제자훈련을 하셨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발전시켜 나갔다.⁹⁾

둘째는 교회 내에 건강한 소그룹 모임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오늘날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성도의 교제(fellowship), 즉 코이노니아(koinonia)는 성령이 교회에 주신 은사이다.¹⁰⁾ Koinonia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들이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심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려면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가능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모임은 건강한 모임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셋째는 개발된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된 평신도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훈련되는 것은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들은 소그룹 개발과 함께 평신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흥하는 대표적인 한국 교회 중의 하나인 온누리교회를 목회한 하용조 목사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했다; “첫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둘째,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셋째, 비전이 이끄는 교회.”¹¹⁾ 하용조 목사는 강조하기를 평신도는 목회자들의 보살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할 동역자라는 것이다.

넷째는 미주이민교회들에게 건강한 소그룹을 양성함으로 성경적이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의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함이 또한 이 연구의 목표이다. 교회마다 평신도 훈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신도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세우는 일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목회자의 목회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목회자가 선택해야하는 방법으로서 이제는 성경공부 수준의 교육식 제자훈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평신도

9)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1.

10) 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01.

11) 하용조,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94-117.

들의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역을 하게 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때이다. 본인이 본 논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방법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이다.

제 2 장

소그룹의 성경적 기원

Gareth Weldon Icenogle은 소그룹사역을 강조하기를 “소그룹은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¹²⁾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모습은 소그룹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소그룹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제 1 절 소그룹의 기원

1.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다.

Gilbert Bilezikian은 “공동체의 본질과 정의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다. 하나됨이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다.”¹³⁾고 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삼위께서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신 삼위로 존재하신다.¹⁴⁾ 창세기1장 26절은 하나님의 자기 존재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מִיִּמְשָׁה יוֹעֵבֵי מִיָּה תִּזְכֶּר וְדַרְיָו וְנִמְוֹמְדָב וְנִמְלָצָב מִכָּא הַשֵּׁנִי מִיְהִלָּא רִמְאָיַן

קִרְאָה־לֵּעַ שְׁמֵרָה שְׁמֵרָה־לִּבְכוּ קִרְאָה־לִּבְכוּ הִמְהַבְכוּ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12)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6.

13)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Community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15.

14)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28.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צַלְמֵנוּ¹⁵⁾ / 모양 (image), suffix 1st person common plural (1인칭 복수)

כְּמוֹמֵנוּ¹⁶⁾ / 형상 (likeness), suffix 1st person common plural (1인칭 복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면서 동시에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며 하나님을 섬겨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창2:18,21-24)

아이스노글이 강조하는 소그룹은 다음과 같다. “소그룹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함께 다스리고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¹⁷⁾ 또한 소그룹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그보

15) Bible Works 5.0 software for Biblical Exegesis & Research, BDB Lexicon, 853.

'B8445 ~l,c, n.m. image (something cut out, cf. ls,P,) -- 1. images of tumours and mice (of gold); esp. of heathen gods; of painted pictures of men. 2. image, likeness, of resemblance, of God's making man in his own image. 3. fig. = mere, empty, image, semblance, '#B. as (b essentiae) a (mere) semblance man walks about hz<b.Ti ~m'l.c; thou wilt despise their semblance."

16) Bible Works 5.0 software for Biblical Exegesis & Research, BDB Lexicon, 198.

'B2169 tWmD> n.f. likeness, similitude (mostly late) -- 1. likeness, similitude, of external appearance (likeness, i.e. something that appeared like). 2. adverbially, in likeness of, like as."

다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갈 때 소그룹에 속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는다고 할 수 있다.¹⁸⁾

소그룹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념할 것은 소그룹에서 동질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동성끼리의 모임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성경적인 소그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미국 교회 안에서는 동성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동성연애자들만 모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성 간의 모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소그룹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동성들만이 모인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주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소그룹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뤄 구성되어야 한다.

제 2 절 성경 속의 소그룹의 실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속에서 소그룹 사역의 실례를 찾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기초를 체계화 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소그룹 사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조 때부터 소그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창 2:17).

17)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1.

18)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0.

“소그룹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서로 만나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거하며,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는 기초 공동체(base community)이다.”

1.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사역의 실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소그룹은 가정이었다. 이 가정은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twelve tribes)로 나뉘어졌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소그룹의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가. 모세가 조직한 소그룹 -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출18:14-22)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에는 모세 혼자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의 조직체계를 가르쳐 주었다. 하나의 대그룹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그룹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소그룹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의 효율성이다.

모세 혼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다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오히려 모세나 백성 모두의 기력만 쇠할 뿐이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함으로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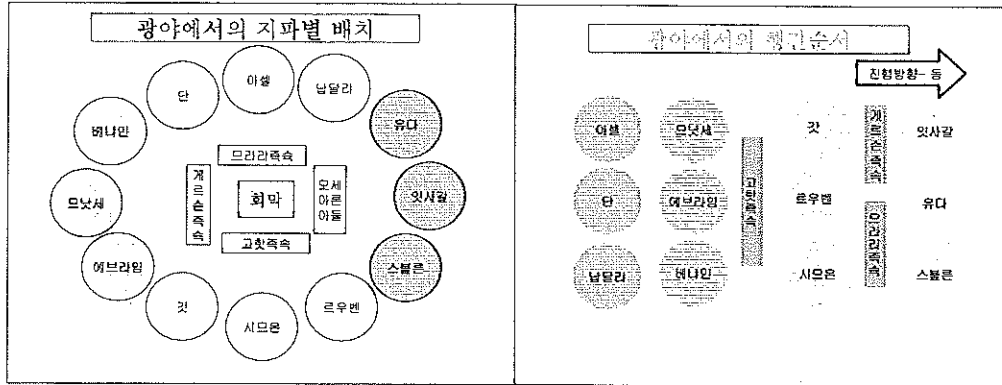
둘째, 소그룹의 지도자 양성이다.

모세가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은 재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막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간 지도자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는 것은 많은 인재들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셋째, 모세가 자신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감당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원래 자신이 감당할 영적인 사명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섬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을 분담함으로써 모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크고 웅대한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나.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12지파



<그림1> 광야에서 12지파별 배치도

출애굽을 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무질서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위치를 정해서 움직이고 정착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움직임은 언제나 성막이 중심이었다. 성막의 동쪽에 유다, 잇사갈, 스블론 3지파가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3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3지파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갓, 시므온과 르우벤 3지파가 위치를 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지 않았다면 광야의 삶은 혼란과 무질서의 삶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세워졌고 효과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에는 열두 지파들과 가족들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따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갔다.

각 지파별 분배지역은 아래의 지도와 같다. 갓지파와 르우벤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나머지 열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들이 분배받은 가나안땅은 이들 자손들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이

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에 각각의 사역을 분배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¹⁹⁾

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건설 (느헤미야3:1-32)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자포자기 상태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동원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면 다름 아닌 백성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함으로 성벽 쌓기에 성공한 것이다.

느헤미야 3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놀라운 것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 성벽 재건은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느헤미야는 전체 예루살렘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직업과 신분에 관계

19) http://www.fkbckeller.org/_chboard/bbs/board.php?bo_table=m4_4&wr_id=61742&sf1=&stx=&st=wr_hit&sod=asc&sop=and&page=6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한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비롯하여, 금을 제공하는 금장색, 향품 장사, 정치인, 평민,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했다.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과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성벽 재건에 동참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벽 재건을 위해 백성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각각의 그룹에게 사역을 맡기고 그 일을 책임지게 한 것이다. 이는 은사를 따라 일을 배치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역할을 분담하여 배치하지 못하면 일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일을 배치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마. 에스라의 수문 앞 광장 소그룹 (느헤미야 8장)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 인격적인 변화는 대그룹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대그룹에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소그룹을 통해서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교제와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기란 불가능하기에 그들은 분명 소그룹으로 날마다 모여서 성도의 신앙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서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느8:6).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십 여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은 것이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은혜를 받은 것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
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느8:7)

레위사람들은 광장에서 백성들을 소그룹 단위로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
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느8:8). 그 결과 “백성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했다(느8:9). 에스라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잘 가르쳐준 것
이다. 느8:9에 보면 레위인을 가리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다. 느헤
미야 8:18에는 에스라의 율법낭독과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이 날마다 팔일 동
안 계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소그룹 사역의 파워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읽
어주거나 설교한 것이 아니라 청중들을 소그룹으로 모아서 해석해주고서 깨닫게 한
것이다(느8:8). 구약시대에서도 말씀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난 곳은 소그룹이었음
을 볼 수 있다.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대그룹보다는 작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라는
것이다.

2.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소그룹 사역의 실례

신약성경에서도 소그룹 사역의 많은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
하도록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열두 제자와 더불어 시작하셨다(막3:14; 눅6:12-19). 빌 도나
휴는 소그룹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였다고 말한다.²⁰⁾ 초대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넘쳐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나타냈다.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사역을 하였다. 이들은 마음을 다해 모이기
와 서로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을 하였다.

20)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The Willow Creek Guide to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연선 역 (서울: 디모데, 2002), 3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안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행2:46-47).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4-25).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2:2).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음은 사도들은 환란과 핍박이 무섭게 닥쳐오는 시대에서 어떻게 교회를 소그룹으로 활성화 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

예수님의 소그룹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열두 제자를 통한 소그룹 사역,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신 소그룹 사역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여주신 소그룹 사역이 그것이다.

(1) 12제자 사역에 나타난 소그룹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그룹을 형성하시기 위하여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을 신약성경은 소개한다(마 4:17-25; 막 1:14-20; 눅 5:27-32). 예수님은 열두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소그룹 사역의 모델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내다보시며 그의 제자들의 소그룹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도 다음과 같이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0-21).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그룹은 하나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12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소그룹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소그룹 모임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함께 모이라"는 명령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격려하기를 힘쓰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열두 제자들의 소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 되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뽑으실 때 도시나 궁전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고기의 비린내가 나는 어부들과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던 세리 같은 죄인들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어부출신(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리출신(마태), 열심당원 출신(가나안인 시몬) 등이었다. 성경은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함을 몸소 보여 주셨다. 예수님 자신도 목수로서의 삶을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 일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삭개오 같은 세리장의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주셨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천막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소그룹의 구성원을 선출할 때 그들의 직업이 기준이 된다면 이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간혹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업종의 사람들과 구분을 짓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각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직업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격 또한 다양했다. 베드로나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앞뒤 가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신앙고백을 해서 칭찬도 받지만, 마귀 짓을 해서 예수님께 심한 꾸중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날 밤에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음에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도 행했다. 또한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격이 겹하고 과격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9:51-56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고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는 반아들이지 않는다. 야고보와 요한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하나의 보복 조치를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예수님은 일축하시고 꾸짖으셨다.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보복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도마 같은 제자는 의심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위선적인 인격을 가진 가롯인 유다도 있었다.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셋째, 열두 제자는 모두 남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남자들로만 부르셨다고 해서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뿐이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막12:41-44), 만지시고, 치료한(막5:30-33)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다고 아이스노글은 말한다.²¹⁾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여성들이라고 해서 제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 병들었든지, 성적으로 불결한 여인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만나 주셨다(막 14:9).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남성 그룹의 제자 소그룹과 여성 소그룹을 가지셨다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시와 경멸의 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

21)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03.

예수님은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 준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셨다.²²⁾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의 그룹을 만드시면서 남성으로 구성한 것은 시대적 상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의 측면도 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 있어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 베일을 쓰고 다녀야 했고, 많은 부분에서 자유가 그리 많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또 혼인한 여자나 처녀는 복음 전한다고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유대문화였다. 당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이 존재하긴 했으나 간음한 남자에게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율법은 없었다는 것만 보아도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함도 있다.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의 활동과 순교를 보면 가히 남성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세계를 누벼야 했던 사도들이었기에 여자를 사도로 둔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자들을 제자로 부르심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했다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소그룹을 구성할 때 역시 시대적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2)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난 소그룹 (마가복음 6:30-44)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먹고 먹을 것을 주길 원하셨다. 그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청중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셨다. 여기서 “떼를 지어”란 마치 집안에서 식탁 주위에 앉은 것처럼 앉은 상태를 일컫는다. 그렇게

22) Laurie Beth Jones, *최고경영자 예수 (Jesus CEO)*, 송경근, 김홍섭 역 (서울: 한언, 1995), 208-211.

모여 앉은 한 때가 50명 혹은 100명씩 되는 규모였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50명씩 앉게 하라고 명하셨다(눅 9:14).

사람의 수를 50명 또는 100명 단위로 무리 지어 앉게 한 것은 식사와 교제를 위한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출애굽 당시의 팡야생활을 연상케 한다(출 18:21).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편성하여 인도하는데 그것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였다.

오병이어 사건은 놀랍게도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42)는 것이다. 이는 충분한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마가는 남자만 오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마 14:21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오천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표현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습으로 그들은 남자 장정만을 공식적인 통계에 넣는다(민 1:3).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아온 청중들은 교인들이요, 그곳 들판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섬기는 제자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이날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을 보아서 12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맡아서 섬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질서하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맡은 그룹을 정해서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자만 오천 명인 대그룹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음식을 짧은 시간에 나누어 주고 그것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질서하게 전체를 줄 세워서 음식을 먹었다라면 밤을 새워도 못했을 것이다.

(3) 70인 제자 파송에 나타난 소그룹 (누가복음 10:1-20)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눅10:1). 이들 70인에게는 12제자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이것은 후에 초대교회의 선교의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 성전에 가다가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보낸 것도 볼 수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모형으로 해서 그들의 선교사역을 했음을 볼 수 있다.

70인 제자 파송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떠나야하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선교사나 전도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교회의 소그룹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70인 제자 파송에서 소그룹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의 최소단위는 두 명이다. 물론 10명 내외를 적당한 구성인원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그리고 이들은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인원이 적을수록 구성원간의 의견의 차이나 충돌이 적을 것이고, 사역을 위해 서로의 협력을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명이 모이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둘째, 소그룹의 궁극적 사명은 전도이다. 그 사명은 축복의 사명,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눅 10:5).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눅 10:9). 소그룹이 가지는 본질적이며 고유한 사명은 전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소그룹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그룹에는 신앙의 간증이 있다. 70인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들도 놀라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서로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간증하였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17). 소그룹에서 서로의 신앙 간증이 있을 때 더욱 은혜로운 모임이 되며 보다 많은 사역들이 활

성화되어진다.

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소그룹 사역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이 매일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행 2:41-47). 또 다른 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그룹의 사람들(행 12:12), 빌립보의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였던 그룹의 사람들(행 16:15, 40),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서의 모임(행 17:4-9), 고린도의 아가야에 있는 스테바나의 집(고전 16:15)의 모임 등과 그리고 에베소, 드로아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이 생기면 소그룹 모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애굽 때에 모세는 십부장, 오십부장을 세워 작은 그룹을 지도하게 했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더 작은 그룹들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대그룹 모임(성전에서 함께 모이는)과 소그룹 모임(가정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를 세워 가는데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역임일 알 수 있다. 소그룹 사역은 오늘날 교회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역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셨다(마 18:20).

다. 초대교회 소그룹의 다섯 가지 사역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인 가정교회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는 소그룹의 가정교회를 생각하면 정확할 것이다. 초대교회 소그룹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초대교회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예배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며 노력한 교회였다. 그들은 매일 모였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성도의 모임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미와 목적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6-47).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이들의 예배는 형식과 절차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발적인 예배의 형태로 드러졌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은 은사를 따라 찬송과 방언과 통역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고리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전 14:26-27)

(2) 제자양육

초대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들을 양육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새롭게 성도가 된 사람들을 즉각 양육하여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다.²³⁾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에서 전도한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

23)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49.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 16:31-34).

또한 빌립집사도 에디오피아 내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말씀을 깨닫자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초대교회는 초신자들에게 제자양육을 바로 시작했고 이들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3) 섬김과 봉사

초대교회의 또 다른 사역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 서로간의 섬김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과 재산을 팔아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행4:32-3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행2:44-45).

초대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곱 일꾼을 세워 이 일에 맡겼으며, 사도들은 그들 본연의 사명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행6:1-7)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다. 이러한 일들을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모두 하게 된다면 분명히 교역자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소그룹을 활용하여 은사를 따라 사역

을 말한다면 참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4)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이다. 이는 교회 내의 소그룹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 관계가 소그룹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건강한 사역으로 이어진다.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소그룹이 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 관계는 소그룹원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관계형성의 첫 번째 단계가 만남이다. 초대교회가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정이 생기고, 관계가 가까워진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만남이 없으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람이 가깝다고 해서 이웃을 사촌이라 불렀다.

둘째는 성전과 집에서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제뿐 아니라 가정별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 사람은 음식을 같은 먹은 횟수만큼 친밀감을 느낀다. 그래서 모든 모임과 회의에는 식사나 음료가 빠지지 않는다. 이 성도의 교제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식탁교제였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제의 영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확대해갔다. 그것이 전도 사역이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5) 복음전도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 복음증거임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으며(마28:18-20),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행1:8)이기도 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요즘 타락한 기복신앙의 복음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 메시지였다.²⁴⁾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이 잘 요약된 곳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11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와 열두 제자에게와 오백여 형제에게와 야고보에게와 내게도 보이셨다 (고전15:3-5).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으로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롬1:2-4).

요약하면 바울사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을 죄에게 구원하는 구속 사건이 되었고 부활은 예수의 이 구속사건이 확실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확신시켜주는 보증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됨을 선언하신 것이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날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되게 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2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49-150.

“사도들의 선포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행위의 중심이고, 그러기에 사도들의 선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캐뉘그마의 초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2:37-38).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41).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8절과 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자신들의 사명인 전도사역에 헌신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야기이며, 또한 이 사명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와 제자 양육, 섬김과 봉사, 성도의 교제 그리고 전도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성경적 소그룹의 특징

Gareth W. Icenogle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며,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다. 관계와 언약으로 맺어진 모임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셨다.²⁵⁾ 그러므로 성경적 소그룹 공동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5)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50-51.

“공동체란 말 속에 언제나 언약이 내포되어 있듯이, 언약에도 늘 공동체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함께하시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선언하심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드신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1.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발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로 확대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6-2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은 동등한 대상자와 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다른 것과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⁶⁾ 사람은 사람과 언약을 하는 것이지 짐승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며 맺었다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과 같은 존재방식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2. 사명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1:28).

아이스노글에 의하면 언약(covenant)은 소집(convene)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언약을 세움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함께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로 서로 다짐을 하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언약이

26)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50-51..

27)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51.

존재함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창1:28) 하셨다. 이것이 사람들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안에 모인 소그룹은 복음전파가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에 헌신을 하게 된다.

3.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다. 성경은 성도의 모임은 가족같이 피로 연결되어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19).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3).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1:12-13).

이는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권속(眷屬) 즉 가족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과는 다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 공동체인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해야 함은 단순히 교회의 조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길의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

성(Self-identity)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²⁸⁾ 성경 속의 소그룹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중심사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이고 또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28)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8.

제 3 장

왜 소그룹 목회여야 하나?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을 설립한 채이석, 이상화 목사는 ‘왜 소그룹 목회가 필요 한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첫째, 소그룹 목회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사도 행전2장 42절-46절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소그룹 목회의 모델이다. 둘째, 현대 사회가 소그룹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소그룹 목회는 필요하다. 인격적으로 대화 할 상대가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나눌 소그룹에 속하고 싶어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그룹에 소속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²⁹⁾

인간은 원래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는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를 인간의 사회성이라 할 수 있다.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김선일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소그룹은 기독교에만 특유한 형태가 아니며 인간은 자신이 소속되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본래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³⁰⁾ 그러므로 소그룹연구는 교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다. 목회자의 사역은 교회를 가정 같은 평안과 행복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그룹이 가정 같은 모임이 될 때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29) 채이석, 이상화, “소그룹 운동 현실 고려한 맞춤형 효과적,” 국민일보 (2006년 10월 17일)

30)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화와 전도 (Evangelism and Culture in a Korean Contex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2009 강의 안), 59.

제 1 절 소그룹의 중요성

1. 소그룹 정의

성경에서는 오이코스(oiko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그룹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격적인 교제 공동체를 의미한다.³¹⁾ 오이코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집(house) 혹은 가정(family household) 그리고 성전(temple, sanctuary)이³²⁾ 된다. 이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³¹절 빌립보에서 사용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household)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이코스의 범주에 드는 것은 인격적 교제의 범주로서 질적인 시간과 마음을 바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³³⁾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성격이 바로 오이코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소그룹은 가정에서 나누는 인격적 공동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스노글은 소그룹을 이렇게 정의한다. “소그룹은 몇몇 사람(세 명에서 20명 정도)이 상호 발전과 타인의 보편적인 유익을 위해 얼굴을 마주하고 존재하고, 삶을 나누며, 행동하는 모임이다.”³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소그룹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소그룹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단순한 하나의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그

31) Ralph W. Neibour, Jr., *셀목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장학일 역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0), 149.

32) Bible Works 5.0 software for Biblical Exegesis & Research, UBS Greek Dictionary, 4284.

“oi=koj , ou m house, home (kat/ oi-kon or kata. tou.j oi;kouj from house to house; h` kat/ oi=kon auvtw/n evkklhsi,a the church in their house); family household; nation, people; temple, sanctuary”

33) Ralph W. Neibour, Jr., *셀목회 지침서*, 149-150.

“기독교인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9명 규모의 오이코스 안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6개월 동안 새로운 오이코스 관계를 발전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34)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20-21.

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아이스노글은 구조적 변화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피라미드형에서 원형으로, 하달식 권력체제에서 공유하는 권력체제로, 관료주의에서 유기적인 구조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는 신분과 권력의 구조가 아니라 인간들이 상호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공통된 삶을 나누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자 개인들이 함께 모여(coming) 하나(unity)되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community)를 이루는 것이다.³⁶⁾

일리노이 주의 사우스 배링톤에 있는 월로우크릭교회는 소그룹사역의 모델³⁷⁾을 칼 조지(Carl F. George)가 주장하는 “메타교회”³⁸⁾에서 가져왔다. “메타교회’는 변화하는 교회, 즉 바뀌고 있는 교회,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³⁹⁾ 칼 조지는 메타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소그룹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보면서 메타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간의 관계에 강조점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교인 수가 50명이 넘는 교회는 모두가 메타교회라고 규정하면서⁴⁰⁾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월로우크릭교회는 다음과 같이 소그룹을 정의 한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그룹이며, 지정된 리더가 인도하는데, 리더는 연결, 공동체, 영적 성장의 환경을 주도면밀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⁴¹⁾ 또한 월로우크릭교회는 소그룹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4명에서 10명)을 그룹 속에서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게 하여, 하나님

35)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5.

36)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6.

37)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337.

38)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 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전의우 역 (서울: 요단, 1999), 24-27.

“메타(Meta)란 헬라어 어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가리키는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 변태 또는 변형)라는 말에서 이 어근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신학생들은 메타노이아(metanoia)라는 헬라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단어는 한 가람의 마음이나 사고가 회개와 회심과 더불어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39)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 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25.

40)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 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27.

41)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288.

게 영광을 돌리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한다.”⁴²⁾ 이 사명 선언문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왜 소그룹이 존재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위해서 소그룹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상의 아이스노클의 소그룹 정의와 윌로우크릭교회의 정의를 종합하면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소그룹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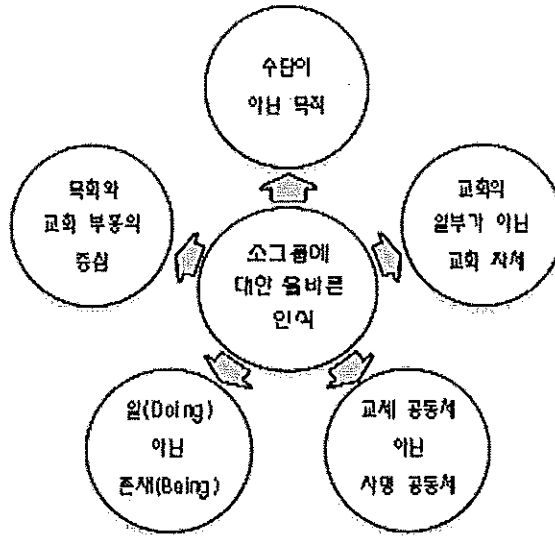
소그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3명-15명 정도)이 모여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라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추구하는 소그룹이란 바로 이 공동체의 정신이 실현되는 인간들의 모임이라 할 것이다.

2.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 옥한흠 목사는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⁴³⁾ 소그룹이란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왜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42)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24.

4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41.



<그림 3>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 소그룹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 내의 소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가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회합을 가지는 8-12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 현대 세속 도시 사회 속에서 복음의 교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그룹들이 오늘날의 도시 사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예배나 프로그램보다 교회의 사명에 보다 알맞은 것이다. 소그룹은 교회 내의 새로움을 위한 은사의 발견과 사용에 대한 최대의 희망을 제공해 준다.⁴⁴⁾

역사적으로 교회의 소그룹은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대 교회들은 소그룹의 중요성을 어느 시대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내의 소그룹운동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온전히 이루고자하는 열망에서의 모임이라기보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의 기술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소그룹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의 소그룹은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공동체라고

44) 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59.

꼬집는다.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세상적인 이론과 정신을 교회성장에 무리하게 접목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치 속담에 있듯이 “뽕 잡는 것이 배”라는 식으로 교회를 대형화 시키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 방법에 관계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인식한 목회자들의 어리석음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소그룹을 논하기 전에 소그룹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에서 소그룹사역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소그룹사역은 대형교회를 추구하면서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자하는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고 교회사를 훑어보아도 그곳에는 소그룹이 있었고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 소그룹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이다.

교회가 참으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그 소그룹들 하나하나가 교회 내의 세포와 조직으로서 건강하게 자신들의 사역을 하며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 일변도의 모습이나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 믿는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바르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여야 한다.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다(엡 2:19). 신약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용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한스 킹은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ekklesia)의 의미를 회중이 모이는 과정과 모여 있는 공

동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 했다.⁴⁵⁾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이라 한다.

다. 소그룹은 교제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들과 그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소그룹은 단순히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사명과 구체적인 사역을 가지고 있는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목회한 고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사역자가 되게 한 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말한다.⁴⁶⁾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마28:18-20)을 주심으로 부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위해 12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셨다. 이것이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며 성도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교회 내의 소그룹을 지도하고 양육할 때에 단순한 친목을 위한 공동체를 넘어서 각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자각하도록 소그룹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 은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는 소그룹을 순모임이라 칭하며, 순모임은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이나 교제 모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순모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순모임은 나눔의 공동체이다. 순모임은 전도 공동체이다. 순모임은 치유 공동체이다. 순모임은 봉사 공동체이다.”⁴⁷⁾

45)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The Church)*,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120.

4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87.

47) 하용조,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245-247.

라. 소그룹은 일(Doing)이 아니라 존재(Being)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를 정의할 때 위의 요소들이 교회의 본질로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위의 요소들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기엔 정확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키기 위함(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되도록(Being)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즉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부르셨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이라는 말씀 속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모으시는 이유도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길 원치 않으신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데 열중했다. 이일을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10:41-42).

교회가 사역(Doing)보다 존재(Being)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깊은 교제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교회의 소그룹은 지난 세기의 구역모임이 아니다. 소그룹은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모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 소그룹은 목회와 교회부흥의 중심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Robert Wuthnow)는 소그룹 운동을 '이 시대 가장 큰 사회적 혁명'이라고 말한다.⁴⁸⁾ 윌로우크릭교회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내적인 성숙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견한 자신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소그룹이었다고 그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는 빌 도나휴는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윌로우크릭교회는 1992년부터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 쳤고 그 결과 대형교회이면서도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⁴⁹⁾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소그룹은 교회 부흥의 중심이었고, 근본적인 동력이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핵심도 소그룹이었고, 미국의 1800년대 성령 부흥운동을 가능케 한 것도 소그룹이었다.⁵⁰⁾ 교회에 만약 소그룹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소그룹이 교회에 유익한 이점을 8가지로 말한다.⁵¹⁾ 첫째는 유연성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동성이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모임이 가능하다. 셋째는 포괄성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넷째는 인격적이다. 다섯째는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세포들이 분열하듯 소그룹은 쉽게 증가되어간다. 여섯째는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최소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며,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그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회와 목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다.

48)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5.

49)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249-252.

50) 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60.

51) Howard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60-163.

제 2 절 소그룹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1.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소그룹을 교회에서 조직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도 아니며, 성도들의 출석률 감소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주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다.⁵²⁾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소그룹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소그룹이 교회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교회의 사명중 하나는 친교(koinonia)이다. Koinonia는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교회의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다.⁵³⁾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성도들 간의 진정한 친교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의 교회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만족으로 충만한 듯한 신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적으로는 그들이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종종 의사소통이 완전히 막히는 어려움을 겪음으로 자주 정신 상태에 혼란과 좌절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느끼며 종종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든 좀더 자신들을 사랑하여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서루가 보기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런 듯이 여겨지므로, 자신의 깊은 내면적 필요성을 이렇게 자기 만족에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놓을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⁵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친교는 주일예배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단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매주 모임으로서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만, 주일과 주일 사이에도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눌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 내의 소그룹을 추천한다. 교회 내에서 소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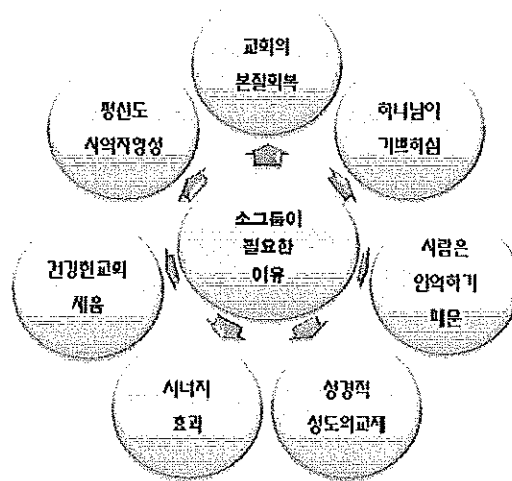
52) Ralph W. Neibour, Jr., *셀목회 지침서*, 122.

53) Howder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03.

54) Howder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02.

룹만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성령의 자유로운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친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small group)에서 비형식적인 친교(fellowship)를 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가장 잘 경험된다는 것이다.”⁵⁵⁾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가.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정체된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돌파구 정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소그룹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길이다. 한국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성도의 유기적 관계성을 증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든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⁵⁶⁾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 되신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소그룹은 이러한 교회의 원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55) Howder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113

56) 박영철, *셀 교회론*, 155.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대형화되고 익명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점검하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⁵⁷⁾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한 몸으로 존재하면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기존 교회들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한다면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소그룹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성경은 결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무엇을 하라는 말이 거의 없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요”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도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57) 이정익,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소그룹 지도자 양육,” 월간목회 (2005년 12월호), 73.

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

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월로우크릭교회의 소그룹 목표에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는 교회”⁵⁸⁾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소그룹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아간다. 소그룹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인간이 되어간다.⁵⁹⁾ 이러한 소속감은 교회의 소그룹에서도 필요하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한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간이 인간다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때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그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 온전해져 간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한다.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출18:14). 아무리 유능한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은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인 것이란 점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드로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출18:17-18).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을 잡아줄 수 있고 더욱 강한 성도로 세워갈 수 있다.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다. 신앙생활에도 넘어질 때가 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기도 한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넘어졌을 때 누가 조금 옆에서 부축해주어도 우리는 얼른 일어날 수

58)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9.

59)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역 (서울: IVP, 2001), 14-16.

있는 것이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겐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은 삶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잡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그룹을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을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한 사람의 힘과 두 사람의 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며 지혜를 짜내서 일을 하면 두 배 세 배 네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수학기초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한다. 함께 할 때에 그 갑절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넘어질 수 있고, 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 소그룹은 성경적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시카코의 윌로우크릭교회의 소그룹사역의 동기는 교회 내의 소외된 사람을 없게 하자는 것이었다.⁶⁰⁾ 인간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인간성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간다. 교회는 대그룹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였듯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성도의 교제와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하며, 그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이다. 현대교회 사역의 핵심이 소그룹 사역이 되어야 할 정도로 소그룹은 사역의 중심이다.

60)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9.

소그룹은 교회에서 교인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느 공동체든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해 갈수 있고 구성원 서로가 발전되어 갈 수 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 본 웨퍼(Dietrich Bonhoeffer)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⁶¹⁾고 말한다. 성도의 교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한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성도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격적인 교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간의 교제를 본 웨퍼는 심리적(Psychic) 현상이 아니라 영적(Spiritual)현상이라고 말한다.⁶²⁾

사실 각 교회마다 교민이 있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도시 교회의 경우 재적수의 50퍼센트 정도만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⁶³⁾ 이러한 이름뿐인 종교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길은 소그룹을 운영함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소그룹은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도 그자체가 생명체이며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초대 교회는 그 속에서 교인들 간의 강력하고도 밀착된 교제의 모습으로 특징지어진다.(행2:46-47)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삶에 관여할 뿐 아니라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그 교제의 질을 발전시켜 나감으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랑의 돌봄과 서로 세워줌이 있어야 한다.

마. 소그룹은 시너지작용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것은 사회학자들의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창조사역에서 온 것이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간다. 물론 잘못된 만남은 도리어 사람을 주눅 들게 하고

61)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Gemeinsames Lehen)*,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7.

62)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24-26.

63) 한미준, 한국갤럽리서치,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27.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준다. 스티븐 코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지레의 받침점을 옮기는 것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들을 시너지적 방법으로 결합시키는 것에서 나오는 창의성, 능력, 생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⁶⁴⁾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소그룹은 교회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역에 걸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그룹은 복음을 위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소그룹은 성도들이 있는 장소이면 집, 직장, 이웃 등 어디에나 위치하여 주위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은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는 말이다.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그룹을 방문하거나 참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소그룹 모임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모임에 초대할 수 있다. 각 그룹원들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전략을 소그룹은 보다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교회 출석의 동기를 조사한 갤럽에 의하면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전도가 64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다.⁶⁵⁾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바.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교회의 질적인 건강을 그 목표로 한다.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는 많은 교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교회의 구경꾼들은 많은데 참으로 건강한 사역자가 없다는 것이다. 주일이 되면 교인들은 야구 구경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즐기고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64) Stephen R. Covey, A. Roger Merrill, and Rebecca R. Merrill,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1997), 284.

65) 한미준. 한국갤럽리서치,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32-33.

“모태 신앙은 20.7퍼센트고, 자기 스스로 출석했다는 응답은 15.3퍼센트에 불과했다. 현실적으로 초신자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전도자는 친구나 선배가 34.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모, 이웃, 배우자 순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전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구경꾼 같은 성도들을 사역자가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사회와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간의 교제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 되어가면서 초대교회에서 보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성도 간에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래알처럼 예배 후에 흩어지는 성도들과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힘이 교회에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다. 바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그 성전 부분, 부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 영적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그룹원들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진정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래되면 허물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다.

소그룹 사역이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라면 질적인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그룹의 성장을 통해서 또 다른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⁶⁶⁾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분명 이는 또 다른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66) 신정, “소그룹을 통해 성경공부의 최대 참여를 유도한다,” 월간목회 (2005년 12월호), 89.

사. 소그룹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소그룹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성격은 평신도의 사역화일 것이다.⁶⁷⁾ 평신도를 사역자로 삼고 세우는 것은 종교개혁 이래의 개신교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에 반기를 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면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적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모두다 사역자이다.

교회는 이것을 깊이 인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그룹을 통한 훈련과 사역 위임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인지적 교육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려 했다. 이 일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인지적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을 위한 지식 전달은 한계가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해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교육된다. 소그룹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초신자들은 신앙을 눈으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모범적인 소그룹 리더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모델들을 많이 양성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소그룹을 지도하게 하여 또한 좋은 모델들을 양성하도록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감당하기란 목회자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이 다른 평신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67) 이정익,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소그룹 지도자 양육,” 73.

“전통적인 목회 방식이 목회자의 설교와 심방, 그리고 절기에 따른 이벤트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그룹 중심의 사역은 평신도를 훈련하고 제자화하여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돌봄과 양육, 전도, 성경공부 등 기존의 목회자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소그룹 리더들에게 위임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온전히 감당할 헌신된 사람들을 양성해야 한다.⁶⁸⁾

인간은 그가 가진 은사를 발휘할 때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요즘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날 한국교회들은 은사나 재능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직분 중심의 일을 해왔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에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 그 사역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엄청난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무엇보다도 교회 내의 인재 양성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모두 사역에 참여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져다주었다.

직분 중심의 교회는 20퍼센트의 평신도 자원을 활용하지만,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80퍼센트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활용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소그룹은 최대한 모여도 12-15명 정도이다. 소그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확인해서 섬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그룹에서는 구성원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이 12명을 집중적으로 소그룹 훈련을 해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부탁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활용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19-2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을 삼아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예배 중심, 교회당 중심의 교회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가정 중심의 교회를 이루었다. 성전중심의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해 갔다.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

68)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329.

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양성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훈련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냈다. 주님의 이 지상명령은 아직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과 힘은 소그룹 사역에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대그룹의 중요성만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제는 소그룹을 통한 사역들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통해서 소그룹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⁶⁹⁾ 초대 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갔다. 오늘 이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작은 단위의 소그룹에 다 참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가 이 소그룹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 중에 많은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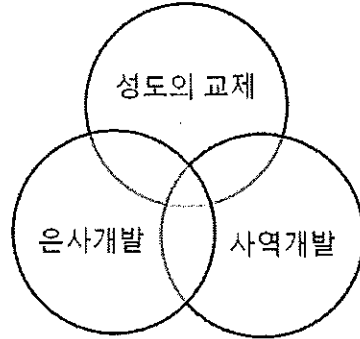
교회가 대예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2. 소그룹의 구성요소

소그룹을 각 교회에서 시작하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소그룹 사역의 구성요소들이다.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나 비전이 부족하다면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그룹 사역을 할 때 각각의 소그룹에 꼭 있어야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소그룹 사역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요소들 중에서 한 부분만 부족해도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윌로우크릭교회에서는 소그룹의 구성요소를 사랑, 섬김, 배움 그

69)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98-201.

리고 전도 4가지로 분류⁷⁰⁾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소그룹의 구성요소를 아래와 같이 성도의 교제, 은사개발과 평신도 사역개발로 구성된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림 5> 소그룹의 3대 구성요소

가. 성도의 교제

소그룹에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룹원들간의 진실한 교제이다. 소그룹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소그룹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소그룹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조직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평안함을 느낀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가족들의 사랑 때문이다.

교인들이 소그룹에서 가정의 평안을 경험하는 교제를 경험한다면 삶속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나. 은사개발

소그룹이 가지는 또 다른 요소는 그룹원들의 숨겨진 은사를 개발해 주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그룹

70)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100-102.

에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 갈 수 있다.

은사는 꼭 전문가처럼 잘해서가 은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역할에 쓰임 받을 때 귀한 은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이 가지는 구성요소로서 그룹원들의 은사를 개발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사역 개발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적인 면은 위에 언급한 구성요소인 성도의 교제와 은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적인 존재 목적은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사역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소그룹이 단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이라면 세상의 조직에 불과할 것이다. 교회 소그룹이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영혼 구원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하고 훈련받으면서 자신들의 모임의 의미와 목적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전도에 힘쓰는 소그룹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이 되는 것이다.

3. 소그룹의 파워

게리스 아이스노글은 소그룹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축소판으로 설명한다.⁷¹⁾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해 가기 때문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으로 성장해가야 한다.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힘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자. 먼저 성경에서

71)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87.

소개하는 소그룹의 파워는 어떤 것인가를 본다면 사도행전2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1-47).

예수님께서서는 소그룹을 모르던 개인들을 모으셔서 소그룹으로 훈련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갔다. 예수님은 친히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을 섬겨 주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소그룹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서로가 높아지려고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배웠다. 훗날 제자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교회 내에 소그룹 사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복음을 듣고 삼천 명이 모였는데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갔다. 사도행전2장은 초대교회의 소그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⁷²⁾ 교회가 소그룹을 잘 정착시켰을 때 가져오는 장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회가 다양성과 일치성을 가지게 한다.

아이스노글은 소그룹 네트워크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초대 교회의 성장은 한번에 하나의 소그룹씩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많은 도시들에 동시에 수많은 소그룹 단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⁷³⁾ 이러한 소그룹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갈 수 있었고, 또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했을 것이다. 오늘 현대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배치를 하고 훈련을 하지만 서로서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72)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87-508.

73)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89.

건강한 교회로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다양한 방언의 은사를 받음으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나라 말을 하게 하셨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됴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행 2:6-11)

교회에서 처음 행하신 성령의 강력한 사역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여러 지역의 방언을 구사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를 하는 소그룹을 세우셨다.⁷⁴⁾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다양성을 주셨지만 동시에 일치성을 가지게 하는 은혜였다. 다양한 언어들이었지만 내용은 동일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의 장점이 여기에 있다. 다양한 문화와 취미를 가진 소그룹들이 세워지지만 그 속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복음을 가짐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경꾼이 많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극장을 찾은 사람들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공연을 즐기듯이 즐기다가 각자의 집으로 떠난다. 그러나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각각의 사역을 따라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헌신한 만큼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짐으로 구경꾼이나 방문자가 아

74)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90.

나라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의 시각으로 보는 사역들도 교회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요구에 맞도록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영적 성장과 변화는 소그룹 공동체와 분리되어서는 일어날 수 없다. 성도들의 신앙성장은 대그룹 사역에서 보다는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험되어진다.⁷⁵⁾ 윌로우크릭교회는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교회 안의 소그룹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⁶⁾ 소그룹의 파워는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전도, 훈련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예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 간다.

라.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면 당연히 그 교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구조나 제도가 바뀐다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윌로우크릭교회의 소그룹을 살펴보면 소그룹이 어떻게 교회 변화의 원동력인지를 알 수가 있다. 평균 4-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은 훈련받은 리더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그룹에 참여해서 성장해 가는데 그 소그룹의 숫자가 무려 2,700개이고, 약 3,500명의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다.⁷⁷⁾ 소그룹의 파워는 교회를 변화시켜 세상에서 칭찬 듣는 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예배만이 사역이던 교회에 소그룹들이 정착되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됨으로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 11: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75)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90.

76) Bill Donahue,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77)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337-338.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영향력은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로 나아간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된다.⁷⁸⁾ 소그룹의 파워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지역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섬김으로 지역사회에게 성경적 삶의 실재를 보임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바. 목회자가 신나게 목회하게 된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문제점은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 본연의 사역보다 부수적인 사역에 너무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여 정작 꼭 필요한 영적인 사역들에는 힘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토요일이면 온갖 행사들이 몰려있다. 결혼식, 들잔치, 개업 등등 주일이 오기 전에 심신이 지쳐버린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목회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소그룹 사역이 힘들수록 리더들은 목회자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 교회 내의 사소한 문제들을 자신들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교인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면서 더 이상 목회자의 사역의 대상자들이 아니라 사역의 협력자들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특히 소그룹 리더들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목회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소그룹 사역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교회 내의 소그룹은 풀뿌리와 같다. 한 나라가 건강하게 전국민에게 골고루 문화와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중앙 집중적으로 정치와 문화가 형성되면 소도시나 시골은 소외되고 발전되지

78)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55.

않는다. 그와 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 섬기는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한 힘은 소그룹 교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의 지하 카타콤에 모인 소그룹교회와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가 박해에서 살아남는 강력한 믿음의 소그룹을 가졌었다.

교회의 소그룹이 건강한 시대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관계없이 다음 시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였다. 그러나 소그룹이 약한 시대는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힘은 바로 복음의 힘이며, 교회의 파워라 할 수 있다.

제 3 절 교회 내의 소그룹과 대그룹의 관계

교회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 그룹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그룹과 소그룹이다. 대그룹이란 공식적인 예배모임을 의미하고 소그룹은 그 외의 모든 모임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서로의 그룹이 상호보안하며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은 활성화되는데 어느 쪽은 와해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1. 교회 내의 소그룹 종류와 그 기능

분명 소그룹은 하나의 형태로만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가 있다. 소그룹의 종류와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지역으로 나누어진 소그룹

지역중심으로 조직이 된 소그룹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구역모임이다. 꼭 지역중심은 아니지만 구역모임과 비슷한 성격의 소그룹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여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름들 중에 목장 모임, 다락방 모임, 가정교회,

속회 모임 등의 이름으로 소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소그룹 모임은 단순한 교제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성경공부와 사역까지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의 리더들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소그룹은 여기에 속하는 소그룹이라 할 수 있다.

나. 사역을 위해서 모인 소그룹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다. 교회관리, 건축, 재정관리, 노인사역, 각종 선교회, 전도, 구제, 교육,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모임 등의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가 정책적으로 조직하는 모임들이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임명된 교인들로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모인 소그룹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모은 소그룹들이 있다. 각종 성경공부 모임, 여러 종류의 세미나, 신앙 훈련 프로그램, 단기선교 모임 등이 있다. 이들 모임은 한시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사역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소그룹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세워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것이고, 사역들은 힘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그룹 사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많은 부분에서 소그룹이 중요하지만 소그룹만으로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기능들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단체들은 건물적 교회를 부인하고 작은 가정에 모여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수하는 소그룹교회는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큰 문제점은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잡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 소그룹의 리더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구성원 전체가 이단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누구도 이들을 통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

다. 또한 소그룹 모임은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역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크고 원대한 사역들은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도 선교사를 협력하는 수준에서는 소그룹도 참여할 수 있지만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고 관리하고 돕는 일들은 소그룹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부산의 풍성한교회를 담임하는 김성곤 목사는 교회는 두 개의 건강한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⁷⁹⁾ 대그룹과 소그룹이 서로 건강하게 교회에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교인이 모여 드리는 예배중심의 대그룹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제와 사역을 위한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그룹과 대그룹의 차이점과 상호작용

건강한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그룹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기능을 함으로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소그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실제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장이며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그룹과 소그룹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의 표를 참조해서 살펴보자. ⁸⁰⁾

대그룹 특징	소그룹 특징
예배 중심	교제 중심
목회자 중심	상호 관계 중심
영적인 것에 관심	실천에 관심
설교로 교육	훈련과 양육으로 교육

<표 1> 대그룹과 소그룹의 차이점

79) 김성곤, *다시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60.

80)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그룹과 소그룹의 상호관계,” *소그룹보물찾기* (2007년 1월호)
<http://www.smallgroup.co.kr/small/index.htm?year=2007>

“예배는 대그룹으로 말할 수 있다.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그룹 활동이다. 소그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다.”

가. 예배를 위한 대그룹과 성도의 교제를 위한 소그룹

대그룹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임을 말한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그룹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임이다. 예배는 대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성도들에게 축제적인 감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그룹원들과 모여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심이 된다. 소그룹에서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 대그룹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에서는 서로서로 지체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구성원들이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야 한다.

기억할 것은 대그룹으로 모인 예배와 소그룹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대그룹의 예배가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은 소그룹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 때문이며,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부흥하는 것은 대그룹의 은혜로운 예배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나. 목회자 중심의 대그룹과 성도의 상호 관계 중심의 소그룹

대그룹 예배에서는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모든 순서를 진행한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인도에 따르게 되어 있다. 예배에서는 설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예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목회자 없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그룹원들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물론 소그룹 리더가 있지만 리더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소그룹 모임이 더욱 은혜로 풍성해진다.

다. 대그룹은 영적인 것에 관심, 소그룹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관심

대그룹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적인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그룹에선 대그룹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도전을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고, 영적인 도전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하다.⁸¹⁾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 예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라. 대그룹은 설교로 교육, 소그룹은 훈련과 양육으로 교육

대그룹으로 모인 예배에서는 성도들을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설교자는 은혜롭고 도전적인 말씀을 전함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에 도전을 주어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한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 훈련과 양육으로 교육을 한다. 물론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나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말씀은 훈련과 양육을 위한 것이다. 훈련과 양육은 단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같이 대그룹과 소그룹은 그 교육의 방법이 다르지만 그 목표는 같은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과 대그룹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그룹이 은혜로워야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고, 소그룹이 성장해야 대그룹이 부흥하다는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⁸²⁾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대그룹과 소그룹을 건강하게 개발한다면

81)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그룹과 소그룹의 상호관계,” 소그룹보물찾기 (2007년 1월호)

82)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그룹과 소그룹의 상호관계,” 소그룹보물찾기 (2007년 1월호)

“대그룹과 소그룹은 분명하게 다른 주도권과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그러나 둘이 상호보완 되지 않는다면, 온전해질 수 없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온전한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날 교회들은 건강하고 은혜롭게 성장해 가리라 확신한다.

3장에서는 왜 소그룹 목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연구했다. 소그룹은 목회의 수단이라 아니라 목적이고,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 자체이고,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모임이며, 목회와 교회부흥을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중심핵임을 알았다. 소그룹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와 건강한 교회,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소그룹의 파워는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유지하고, 사람과 교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 4 장

교회 내의 소그룹 개발을 위한 연구

소그룹이 가지는 성경적인 근거들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좀더 구체적인 소그룹의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고 하신 말씀이다. 이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⁸³⁾

중요한 것은 이제 ‘소그룹을 어떻게 교회에서 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많은 교회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고 시작을 해보았지만 성공적으로 소그룹이 정착하고 활성화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본장에서는 소그룹 사역을 교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시작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소그룹 개발

개혁교회가 아닌 기존 교회에서 소그룹사역을 시작하기란 생각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소그룹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의 구조적 변화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관을 바꿔야 하고, 교인들은 교회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이는 홍보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교육과 삶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와 기도 없이는 기존

83) Carl F. Geor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ICG, 1997), 27.

교회의 구조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경적 소그룹 사역을 하는 소그룹 중심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목회자가 준비하고 계획하며 추진해야 할 전략들을 살펴보고자한다.

1. 소그룹 개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

소그룹은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그룹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소그룹의 모양만을 흉내 내려고 하지 참으로 중요한 소그룹 목회의 정신과 그 본질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하는데 있다. 그래서 단순히 부흥한 교회들의 구조적 모습만을 흉내 내어 소그룹 구조를 가진 교회만을 추구한다. 이들은 소그룹 구조가 마치 무슨 마술적 힘이나 가진 것처럼 교회를 성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로 무리하게 교회에 접목시키려 할 때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그 결과 소그룹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되고 심지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된다.

분명한 것은 소그룹의 구조를 가진다고 교회의 부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닌 소그룹 사역이 있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⁸⁴⁾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는 소그룹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을 정체된 교회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사용하기보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회자가 기억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회자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인식과 목회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84)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19.

가. 목회자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인식

소그룹이 교회에 바르게 정착되고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소그룹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회철학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소그룹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 사역이 여러 교회들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소그룹 사역이 교회 내 많은 사역이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사역의 본질로 다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놓았다고 소그룹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목적에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라 정의한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교회를 움직이는 8가지 유형들을 소개한다.⁸⁵⁾ 릭 워렌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바 신약성경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목적들을 기초해서 세워진다.⁸⁶⁾ 이는 성도의 교제, 훈련, 예배, 사역, 전도이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세워져야하고, 이끌려져야한다. 성경은 그 방법을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소그룹 사역을 함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1)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다.

예수님은 대중들을 사랑하셨고 가르치셨으나 그의 중점 사역은 12제자들이셨다. 제자들과 형식적인 만남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서 가르치시기 이전에 삶으로 가르치셨다.

85)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1996), 91-100.

“첫째,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둘째, 사람에게 의해 움직이는 교회, 셋째, 재정
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넷째,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다섯째, 건물에 의
해 움직이는 교회, 여섯째,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일곱째, 구도자에 의해 움
직이는 교회, 여덟째,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86)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35-269.

소그룹은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삶을 나누는 것이 먼저이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룹원들이 삶을 진실하게 나누지 못한다면 그 소그룹은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2) 소그룹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소그룹은 교회가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기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직⁸⁷⁾이다. 왜냐 하면 소그룹은 가정과 같이 모든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모임이며 인격과 인격이 대면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소그룹사역이 목회의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목회의 중점사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 목회자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

21세기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전의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이를 스티븐 코비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⁸⁸⁾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세계관이라 한다. 목회자에게는 오늘의 시대와 만고불변의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를 21세기 목회관 혹은 목회철학이라 할 수 있다. 목회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시대를 바르게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 목회자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다.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지 못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교회 역시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존재가치와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리더십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87) Carl F. Geor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28.

88) Stephen R. Covey, A. Roger Merrill, and Rebecca R. Merrill,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116-150.

실현하는 길을 “비전 삼진법”⁸⁹⁾으로 설명한다. 첫 단계는 비전을 보는 단계, 다음은 비전을 말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루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목회자가 소그룹 사역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존 맥스웰의 비전 삼진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많은 경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꿈꾸며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 비전을 남들에게 말하고 남들이 이 비전에 공감하여 함께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다. 목회자가 소그룹사역에 대한 목회의 비전을 보았다면 그 비전을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득시켜서 그 비전이 목회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는 담임목사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이 확고해야 한다. 둘째는 소그룹에 대한 담임목사의 비전이 소그룹 지도자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한다.⁹⁰⁾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확신과 소명감이 없다면 소그룹 사역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지도자로 세울 성도들에게 소그룹에 대한 목회자의 비전이 공감대로 형성되어야만 한다. 목회자의 비전이 리더들의 비전이 될 때 그 교회의 소그룹은 건강해질 것이고 튼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예로 살던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 자유인으로서 출애굽을 달성한 리더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 혼자만의 비전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본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나갔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은 의미 없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비전을 가졌고 이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서 52일 만에 이 비전을 이루어내었다. 모세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살핍으로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89) John. Maxwell, *열매 맺는 지도자 (Be All You Can Be)*, 오연희 역 (서울: 두란노, 1991), 89-100.

90) 이정익,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소그룹 지도자 양육,” 74-75.

(1)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기

목회자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다면 이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다면 많은 혼란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소그룹사역에 대해서 이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였다면 쉽게 교회에 접목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소그룹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면 소그룹을 사역을 목회의 중점사역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열망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소그룹사역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목회의 사역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결국은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작한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목회자 자신이 소그룹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소그룹사역을 위한 첫걸음은 소그룹 사역에 대한 목회자 자신의 분명한 소명의식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성도들이 목회자의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비전을 공유함이란 비전 나눔을 의미한다. 이는 한 사람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 비전을 나눔으로써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말할 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⁹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세계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었고 이것은 12

91) Laurie Beth Jones, *최고경영자 예수*, 197.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다.⁹²⁾ 마틴 루터 킹 2세는 미국을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미국의 흑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리더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비전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다. 목회자 또한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⁹³⁾ 특히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회자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팀 사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뉴호프교회 웨인 코디로 목사는 교회에서 팀사역이나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첫걸음을 비전을 통일시키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교회에 비전이 없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요소는 비전이 너무 많은 것이라 했다.⁹⁴⁾ 우리 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 비전이 통일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빌2:2)라 했다.

소그룹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비전 선언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 선언문을 성도들로 하여금 암기하고 선포하게 해야 할 것이다.⁹⁵⁾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전도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다.⁹⁶⁾

(3) 비전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기

성도들은 소그룹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가? 현대 목회자들은 모세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목회자의 비전을 어떻게 성도들과 나누며 개인의 비전이 교회와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함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교회가 목적을 따라 세워져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하나님

92) Hans Finzel, *리더십의 파워 (Empowered Leaders)*, 김재영 역 (서울: 디모테, 2000), 50.

93) Hans Finzel, *리더십의 파워*, 167.

94) wayne Cordeiro. *팀으로 이끄는 교회(Doing Church as a Team)*, 김경섭 역 (서울: 프리셋트, 2006), 182-185.

95) Hans Finzel, *리더십의 파워*, 181.

96) 김성곤, *다시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233.

의 교회를 향한 목적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배의 선장 같아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배가 움직이듯이 목회자가 움직이는 대로 교회는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첫걸음은 목회자가 소그룹사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과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가진 비전을 교인들에게 말하고 비전을 나누어야 하며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소그룹 사역에 헌신하게 하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소그룹을 섬기게 함으로써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은사개발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는 더 많이 헌신을 하기 때문이다.

새들백교회에서는 은사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확인한다. 또한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를 따라 사역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⁹⁷⁾ 성도들의 은사개발을 위해서 은사개발 프로그램과 상담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성도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또한 보다 헌신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깊이 열정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소그룹을 정착시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빌 도나휴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소개한다.⁹⁸⁾ 첫째는 일관성(Consistency)이다. 사역의 목적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한다. 문제에 부딪혔다고 목적을 수정한다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랑(Love)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기에 목회에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용기(Courage)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 확실한 보장 없이 단지 사명감만으로 무엇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바다에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듯, 교회사역은 바다 같아

97) Christian A. Schwarz, Christof Shark,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Implementation Guide to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준영, 오태균 역 (서울: NCD, 2000), 59-63.

98) Bill Donahue, Greg Bowman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코칭 (Coaching Life-Changing Small Group Leaders)*,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6-19.

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기에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2. 소그룹 개발과 활성화

목회자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성도들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이 나누어졌다면, 소그룹 사역을 위한 교회 내의 토양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성도들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개발해 내고 활성화하여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이론이라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정착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 목회자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마귀는 이 사역이 시작되고 정착되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사역자로 알려진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는 교회 내에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한 목회자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가정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정의한다.⁹⁹⁾ 최영기 목사의 이론이라면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개척교회를 만드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인을 몇 명 묶어서 임명하는 수준으로는 소그룹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2 절 소그룹 사역을 위한 단계별 전략

목회자가 소그룹 사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기로 선포한 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며 그 단계별과정은 어떠한지 할지를 연구해보자.

9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0), 71.

1. 전교인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한 교육

교육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의 비전과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명선언문에 동참하게 한다. 교인들이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이 사역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전교인들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해 교육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가.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한 교육

목회자는 전략적으로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축복들을 가르쳐야 한다. 모든 교회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나.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사역 세미나

가능하면 소그룹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갖는 것이 좋다. 또한 교인들을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케 하는 것도 좋다. 세미나를 통해서 교인들의 지식뿐 아니라 의식도 많이 넓혀 줄 수 있다. 많은 경우 교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인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드러왔던 예배가 전부인줄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의식들이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흥하는 교회를 방문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미나는 열편의 듣는 설교보다 더 강하게 교인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다.

2. 평신도 소그룹 사역자 세우기

교인들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목회자가 판단될 때에 교인들 가운데서 소그룹 리더가 될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기성교회에서는 직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분 중심으로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게 한다. 물

론 직분을 받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은 직분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은사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소그룹에 속하여 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그룹을 인도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소그룹 사역의 승패는 사명감과 은사를 가진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은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¹⁰⁰⁾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들과 목회자보다 더욱 친밀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돌봄의 요소¹⁰¹⁾라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평신도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세워야 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평신도 소그룹 사역자들을 어떻게 선출하고 선출된 교인들을 어떻게 리더로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그룹 리더 선출하기

목회자는 성경공부와 세미나를 통해서 교인들을 훈련하면서 특별히 리더로 세울 평신도들을 발견해야 한다. 목회자가 소그룹 리더를 선출하여 세우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1)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교인들 중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인격과 자질을 가진 성도들을 발견하여 세우는 것이다. 탁월한 소그룹의 리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도전해야 할 때가 많다고 빌 도나휴는 말한다.¹⁰²⁾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망설임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를 리더가 되게 하셨다. 목회자는 누구보다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목회자가 판단하기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울 때 가끔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함에도 리더로

100) Christian A. Schwarz, Christof Shark,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102-103.

101) Christian A. Schwarz, Christof Shark,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103.

102)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203.

세우고 싶은 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가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하여 그도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실 때 그들에게 리더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가 가질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사역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목회자의 사역에 협력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 없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그룹 리더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리더가 될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출할 때 그들이 가진 자질 중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있었다. 리더는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소그룹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 소그룹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들 중에서 소그룹 사역에 사명감을 가진 평신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리더 신청서를 받는 것이다.¹⁰³⁾ 물론 리더를 세우기 전에 은사 개발 세미나와 테스트를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리더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이 소그룹 사역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공부와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소그룹 사역에 리더가 될 사람들이 발견되고 사역에 헌신할 평신도들을 구할 때 이들은 자원하게 될 것이다.

나. 소그룹 리더의 자질

목회자는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을 알고 세워진 사역자들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자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빌도나휴와 그렉 보먼은 소그룹 리더의 자질로서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리더로서의 열정이라고 소개한다.¹⁰⁴⁾

103)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201.

104) Bill Donahue, Greg Bowman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코칭*, 32-45.

(1)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다. 소그룹 리더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교체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 리더가 되면 자신의 많은 부분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보내게 된다. 이러한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포기를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깊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2)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은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사랑해야 하고, 한 교회의 목사는 자신의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해야 마땅하듯이 소그룹의 리더는 자신의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남의 일보듯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구성원들에게 애정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

(3) 리더가 가질 자질 중에서 소그룹을 성장시키는 열쇠는 열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일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단순한 지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소그룹 사역도 그러하다.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리더들이 섬기는 소그룹은 그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룹원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면 결국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들이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힘은 열정이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다른 부분이 다 부족해도 그의 열정이 그 부족들을 다 덮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열정은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 효과적인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단계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단계별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로서 자라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과정을 통해서 리더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빌 도나휴는 그의 책에서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소개한다.¹⁰⁵⁾ 그것은 교실에서 훈련하고 수습 리더로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빌 도나휴가 제시한 단계별 훈련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 단계로는 이론적인 교육 훈련단계이다. 이 단계는 훈련단계라기보다는 강의식 교육과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강의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교육 훈련과정이다.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가져야 할 리더법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경청하는 법, 성경공부 인도법, 그룹원들에게 질문하는 법, 그룹 내의 갈등을 다루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¹⁰⁶⁾

두 번째 단계로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직접 보고 참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일대일 지도가 필요하다. 한명의 예비 리더를 잘 훈련된 리더 한명이 직접 가르치고 소그룹에 참여시키는 과정이다. 다른 리더가 소그룹을 어떻게 리더해 가는지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리더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실전에 들어가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강의실에서의 교육을 훈련의 단계가 되게 하려면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¹⁰⁷⁾

마지막 단계는 직접 현장 실습을 해보는 단계이다. 예비 리더들이 직접 소그룹에 참석해서 인도해보는 단계이다. 그들이 배우고 보고 익힌 리더로서의 능력들을 소그룹을 직접 인도해 봄으로 점점을 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그룹을 인도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리더로서 훈련되고 소그룹을 맡는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다.

105)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212-214.

106)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213.

107)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213.

라. 소그룹 리더 훈련 내용

소그룹 리더가 훈련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그룹 사역이 시작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을 세우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리더들에게 동기 부여와 격려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말이다.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도리어 소그룹 사역을 약화시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 전략과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개발해야 한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들의 훈련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소그룹 리더들을 어떤 내용으로 훈련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1) 말씀

소그룹 리더들에게 말씀훈련은 그룹원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은 성경공부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경공부식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소그룹 리더들에게 중요한 말씀 연구는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QT와 경건의 훈련을 강하게 해야 한다. 그룹원들이 매일의 삶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말씀묵상을 통해서 리더가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리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꼭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훈련은 한두 번의 교육이나 세미나로 되지 않는다. 훈련은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그 은혜를 그룹원들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한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신학자의 강의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의 삶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들은 꼭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메모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소그룹에서 나누는

성경말씀은 주일 예배에서 전한 담임목사님의 설교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리더는 누구보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설교말씀을 붙잡고 한주를 적용하면서 산다면 훌륭한 성경공부 리더가 될 것이다.

(2) 기도

기도만큼 훈련이 필요한 과목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기도를 한다면 기도보다 쉬운 것이 없겠지만 기도는 자기희생과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다. 그와 같이 소그룹 리더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들의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어놓고 기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물론 그룹원들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은 꼭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그룹원들만을 위한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환자나 어려움에 있는 그룹원과 그룹원들의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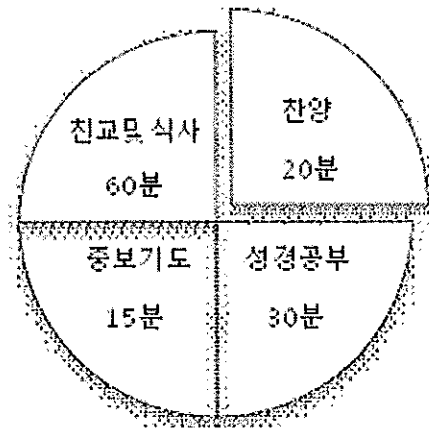
(3) 소그룹 모임의 원칙

소그룹 모임은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인 성숙을 위한 모임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형식적인 성경공부가 되지 않도록 한다.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이다.

소그룹 모임 시간은 3시간 내가 적당하다.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의 시간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소그룹을 건강하고 은혜로운 모임으로 만들어 간다. 너무 길면 다음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가 부담이 되

어 참석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너무 짧으면 모임의 깊이가 없어지고 형식적인 느낌을 주게 되어 모임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모임시간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시간으로 배정할 수 있다.



<그림 6> 소그룹 모임 시간 배정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채우려 하거나 도중에 멈추려하지 말고 소그룹의 형편에 따라 다소 변화는 줄 수 있지만 소그룹마다 기본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찬양은 소그룹 안에서 찬양에 은사가 있거나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룹원에게 사역을 맡기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 나눔 시간에는 그룹원들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은혜롭다. 중보기도 시간에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의 깊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리더는 그룹원들의 사정과 기도 제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꼭 필요하다.

(4)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

소그룹 인도에서 꼭 기억할 것은 리더가 혼자 모든 순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순서에 그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함께 모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임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강의식이나 가르치려는 자

세는 금물이다. 도와주거나 섬기려는 자세로 인도해야 한다.

그룹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아낌없는 솔직한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혹시라도 그룹원이 실수를 했다 해도 핀잔이나 꾸중의 자세는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룹원의 입장에서 듣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세가 리더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룹원은 더욱 마음을 열고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리더는 언제나 그룹원들을 살피야 하고 혼자 있는 그룹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룹원들이 소그룹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훌륭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¹⁰⁸⁾ 그룹원들에게 리더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순간순간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유머를 준비하는 것이 소그룹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 유머는 사람들을 긴장감에서 풀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5)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면서 주의 사항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면서 리더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소그룹 모임은 사적인 친교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이며 교회에서 허락한 공적인 교회모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사적인 모임같이 해서는 안 된다. 모임 시에 자유롭고 평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자신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그룹원들은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다.

소그룹 모임에서 적용과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잘못만 이야기 해야지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눔 대화는 비밀의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룹원들이 신뢰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길게 하는 그룹원의 말을 갑자기 중단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다.

108)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232.

(6) 소그룹 사역 헌신서¹⁰⁹⁾ 만들기

소그룹 리더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때 리더들의 사역에 대한 헌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으로 되어져야 한다. 교육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소그룹 리더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소그룹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성공을 꿈꾼다. 소그룹 리더로 세움을 받을 리더들에게 자신이 꿈꾸고 소원하는 소그룹에 대한 헌신을 하게 해야 한다.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교육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의 헌신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헌신서에는 소그룹 인도를 위한 기본 원칙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고려하고 필요한 원칙들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을 세워 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¹¹⁰⁾

소그룹 서약서란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리더와 그룹원들이 같이 서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리더의 서약과 그룹원들의 서약을 포함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모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부담스러운 서약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서약서의 내용은 모이는 특정한 기간 동안 서로가 헌신적으로 지키기로 동의하고 약속한 구체적인 사항, 원리, 규칙, 목표 등을 문서로 같이 정리한 것을 말한다.¹¹¹⁾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소그룹 리더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이다.¹¹²⁾

- a. 소그룹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 b. 그룹 멤버 각자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한다.
- c. 그룹 멤버가 서로 지킬 기준을 정한다.
- d. 팀웍 형성과 소그룹의 공통의 마인드 형성을 도와준다.
- e. 소그룹과 각 개인의 성장 상황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 준다.

109)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소그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소그룹 서약서,” 소그룹보물찾기 (2009년 1-2월호)

<http://www.smallgroup.co.kr/small/view.php?code=small&year=2009&month=01&idx=373>.

110)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소그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소그룹 서약서.”

111)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소그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소그룹 서약서.”

112)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소그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소그룹 서약서.”

f. 때로 소그룹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 이 변화를 용이하게 해준다.

g. 새롭게 소그룹 멤버가 될 사람에게 그룹의 방향을 전달해 주어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게 한다.

소그룹 서약서를 그룹원들이 모여서 작성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룹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참여해야 모두가 책임 있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헌신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한 헌신서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는 소그룹 서약서 샘플(113)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샘플을 참조하면 서약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그룹 서약서 (샘플)

*사명선언

우리 00목장은 00교회 지체들의 작은 모임으로서 성령의 부르심에 의하여 서로 간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밖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무제한적인 사랑과 지원, 격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소명

우리는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 형제자매들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사명 선언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모임의 구조

우리는 매주 약 두 시간 정도 모이는 모임에 헌신한다.

우리는 모임에서 한 시간은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세우는 시간으로 삼는다.

그리고 또 한 시간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헌신한다. 다음과 같이 시간을 활용한다.

- 개인 기도를 위한 나눔과 기도 요청
- 말씀 나눔과 삶의 적용,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
- 그룹 기도
- VIP를 위한 기도

*소그룹 헌신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헌신한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연결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매일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 (기도, 성경읽기, 묵상, 영적일기쓰기)

-목장에 참여하기 전 모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과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다.

-매주일 모임에 참석하며 참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그룹에 꼭 알린다.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킨다.

-목장 안에서 서로의 리더십 역할을 나누어 철저히 사역을 분담한다.

-늘 VIP 초청과 재생산을 위한 소원을 품고 노력한다.

-젊은 부부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서로 돕는 가정이 된다.

-목장 안에서 나눔 삶의 이야기는 철저히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로 한정한다.

<표 2 소그룹 서약서 샘플>

제 3 절 소그룹 사역 시작

소그룹 리더로서 교육과 훈련을 마치게 되면 리더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훈련된 리더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사역현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소그룹 리더들에게 그들이 섬길 소그룹을 배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들이 이미 속해있는 소그룹을 분가해 주는 것이다. 소그룹 리더 훈련은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속해있는 소그룹에서 리더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고 배우며 직접 실습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은 교회에서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어서 새롭게 훈련된 리더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소그룹을 맡아 인도하게 된 리더들을 모집하고 훈련해서 첫 모임을 가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그룹 사역을 교회의 중점 사역으로 선포하고 중요성을 교육한다.

교육방법은 주일 예배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한다. 그룹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좋을 것이다.

2. 소그룹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한다.

소그룹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판단해서 소그룹 리더로 세워야 할 성도들을 선발해서 훈련에 참가하도록 한다. 지원하는 사람의 자격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 훈련기간은 3개월 정도로 하며 상황에 따라 훈련기간 내에도 소그룹을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담임목사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실제로 소그룹 활동을 실습으로 보여 주면서 리더로서 필요한 사항과 소그룹 인도법을 가르친다면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3. 소그룹 리더의 첫 소그룹 모임

모든 일에서도 첫걸음이 중요하듯이 소그룹 사역에서 첫 모임은 중요하다. 첫 모임의 장소는 리더의 집이나 교회로 하는 것이 좋다. 첫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자.

가. 리더는 자신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소개한다.

리더는 자신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그룹원들과 함께 소그룹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리더와 그룹원들이 함께 소그룹 비전을 공유하고 소그룹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진다.

나. 그룹원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낸다. 단지 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헤어질 뿐이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룹원들간에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다. 소그룹 이름을 짓는다.

자신이 속한 소그룹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룹원들이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리더는 소그룹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교회의 방침을 숙지해서 그룹의 이름을 짓도록 그룹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마다 소그룹 이름을 짓는 기준이 다르다. 어느 교회는 선교지 이름으로 짓고, 어느 교회는 사역을 중심으로 짓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짓기도 한다.

라. 소그룹 사역을 위한 일꾼들을 세운다.

소그룹 사역은 리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룹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 그룹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음악담당, 연락담당, 아이들 돌보는 담당, 새가족 담당 등이 필요하다. 자신이 소그룹을 위해서 맡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 소그룹 모임의 순서와 내용을 소개한다.

소그룹 모임 장소 정하기, 성경공부 내용, 중보기도, 모임 시간 등. 앞으로 소그룹 모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룹원들이 소그룹 모임을 더욱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소그룹 모임에 대한 보고를 담임목사에게 한다.

리더는 언제나 모임을 마치면 꼭 담임목사에게 소그룹 모임에 있었던 일들과 그룹원들의 기도제목을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한다.

소그룹의 성패는 끝없는 교육과 훈련과정에 있다. 훈련은 계속해서 아궁이에 땀감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 리더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곧 열정과 사명감이 식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리더들을 계속해서 훈련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에너지와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는 정기적인 리더 훈련과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른 리더들을 양성해서 소그룹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리더 없이는 소그룹이 존재할 수 없다. 쉽게 표현하면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비행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과 적절한 투자를

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소그룹 사역에서도 지원과 투자는 꼭 필요하다. 먼저 목회자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목회자가 열정만 가지고는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열정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목회자가 먼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미나를 참석하고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을 함께 세워갈 부교역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훈련되고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해야만 한다.

본장에서는 교회에 소그룹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교회에 소그룹이 개발되기 위한 전제는 목회자에게 있다. 목회자의 소그룹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인식과 비전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이 가진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교인들과 공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소그룹 개발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가야 한다. 전교인을 상대로 소그룹의 필요성을 설교와 성경공부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소그룹을 위한 일꾼들을 양성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은 목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일꾼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해 가야한다. 세미나를 통해서 헌신자들을 모으고 집중 훈련을 해서 리더로서 헌신된 자들을 세워가야 한다. 헌신된 리더들에게 소그룹을 분가해 줌으로 실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 5 장

소그룹 사역을 위한 미주 한인교회 이해 연구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존재해 왔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인 이민교회들의 한인 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목회자의 신학적 지식과 목회경험과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겠지만 목회 현장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민의 상황은 분명히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민 목회를 하고 소그룹 사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민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민교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역들을 목회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미주 지역의 이민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이민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소그룹을 목회현장에 접목시키는지 연구해 보고자한다.

제 1 절 미주지역 이민 한인교회 이해

한국의 미국 이민의 역사는 곧 이민 교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이민의 첫 주자들은 대부분 인천 내리감리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다. 1903년 이들 한인 이민자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 노동자로 이 땅을 밟아 이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¹¹⁴⁾

114) 민경석, “이민생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문화와 문화 사이에 산다는 것으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긴장들과 충돌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⁵⁾ 이는 이민교회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이방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목회자의 목회활동 또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민 초부터 지금까지 이민교회들은 처음 이곳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공항에서부터 정착까지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신적 영적인 도움까지 제공해주고 있다.¹¹⁶⁾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한국 내의 교회들과 비교할 때 성도들의 삶과 더 많이 밀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교육에서 결혼 그리고 직업선택까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삶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엄청난 고민과 방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 모든 성도들의 이민 생활에서 오는 문제들의 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민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답은 교회 내의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 미주 한인들의 종교성향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나누고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상담, 부부간의 갈등상담, 이민생활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상담 등. 그러므로 교회는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과의 연결도 중요하며 교회 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Theology 1 (2009), 46.

“한인들의 미주이민은 1903년에서 1905년까지 65척의 배편으로 7,226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중에 637명은 여자들이었고 그것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한인들의 외국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잠정적이거나 중지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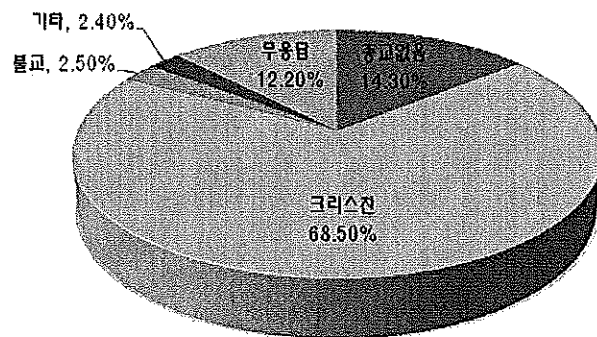
115) 민경석, “이민생활에 대한 신학적 성찰,” 55.

“이민적 삶의 도전은 가치의 불확실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도전이다. 이것은 종족, 언어, 문화, 역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확실성과 동일성을 누려왔던 우리 한인들에게는 특별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16) 이학준, “한인 이민 1세 교회 윤리의 비판과 재구성,”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84.

한인교회가 미주 한인사회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¹¹⁷⁾ 교회는 이민역사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한인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2008년에 실시한 미주 한인사회 종교 실태 분석¹¹⁸⁾에 의하면 한인 4명 가운데 3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석한 사람은 총 3,898명이다. 전체 응답자의 68.5퍼센트(2,671명)가 기독교 신자였으며 특별한 종교가 없는 무종교가 14.3퍼센트, 불교신자가 2.5퍼센트를 각각 차지하였다.¹¹⁹⁾



<표 3> 미주 한인들의 종교 성향

2. 미주 한인 교회 이해

2010년 미국 연방 센서국에서 실시한 미국 내 인구 현황 표본조사¹²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북미 한인 교회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총 4,549이며, 이는 미국 내 전체 한인인구 1,306,714명을 고려할 때 대략 미주 한인 316명당 1개꼴로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만 해도 미주에서 이민 생활하는 한인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민교회가 이민자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교회들의 상황은 어려움이 많다. 이민신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에

117) 이재훈, “재미 한인사회 종교 실태 분석: 2008년 재미한인전국조사 중심,”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148.

118) 이재훈, “재미 한인사회 종교 실태 분석,” 148.

119) 이재훈, “재미 한인사회 종교 실태 분석,” 148.

120)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acs/www/>(American Community Survey)

따르면 이민교회들 대부분은 작은 숫자가 모이는 소형교회들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4,00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를 1년 3개월 간 실시해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백서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북미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로 북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1세 목회자 864명, 북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2세 목회자 및 2세 617명, 북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2,507명,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다민족 파트 121명으로 총 4천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로 1년 3개월 간 진행됐다. 또한, 현재 이민교회의 평균 주일예배 출석 인원수는 21~25명의 소형교회로 22.3퍼센트를 차지하며, 20명 미만의 인원이 출석하는 교회는 12퍼센트, 40~80명의 예배 참석 인원인 응답자는 41.3퍼센트,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11.4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출석인원 80명 이하의 소형교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대형교회의 비율은 이민사회에서도 한국사회와 동일하게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배 참석률은 대부분의 평신도 응답자들 96.1퍼센트가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답했고, 주중 예배에는 52퍼센트로 절반 정도의 참여도가 나타났다. “그 외 성경공부 39퍼센트, 새벽 예배 38.6퍼센트, 봉사 33퍼센트 등의 차례로 말씀과 영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면서 “개인 영성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내부적인 영성이 이민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¹²¹⁾

이민신학연구소는 한인 2세들에 대한 한인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연구 발표하기도 하였다. 연구소는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¹²²⁾”라 이름을 지었다. 매우 많은 수의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고 있음에도 교회는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2세들의 이탈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민신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수교하시는 오상철 박사는 북미주 지역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에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이민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¹²³⁾고 지적하면서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121) 오상철,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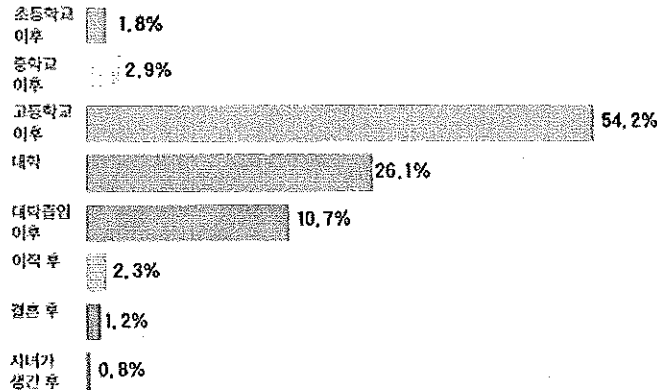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9606

122) 오상철, “한인 2세 이민교회 이탈 문제 조사,” LA중앙일보 (2012년 6월 18일), 종교면

123) 오상철, “한인 2세 이민교회 이탈 문제 조사.”

시기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도표로 발표했다.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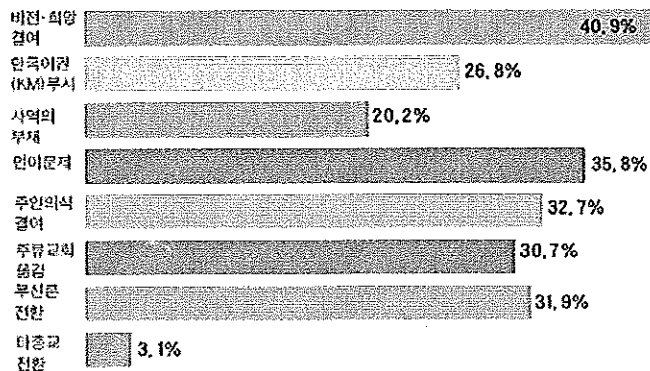
한인 2세대들 언제 이민교회를 떠나나



<표 4> 한인 2세대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시기

한인 2세대들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



<표 5> 한인 2세대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민신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세대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는 54.2퍼센트가 고등학교 이후, 26.1퍼센트가 대학 진학 후 교회를 떠난다고 했다. 그리고 2세대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로는 첫째는 비전과 희망이 없어서(40.9 퍼센트), 다음은 언어문제(35.8퍼센트), 그리고 주인의식 결여(32.7퍼센트) 등으로 응답했다.

124) 오상철, “한인 2세 이민교회 이탈 문제 조사.”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는 절반 가까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2세들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전략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갈 2세대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민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한인들이 이민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조사하면 이민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민 목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예배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표면적인 이유에서는 가장 우선되겠지만 사람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기능인 예배와 교회 행사 이외에 또 다른 교회의 기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민교회는 한국의 교회들보다도 더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민자들은 외국에서의 외로움과 사회 활동의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북미 디아스포라와 이민교회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이민자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와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더욱 종교적 삶을 살게 된다.¹²⁵⁾고 지적한다.

미주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이민의 삶을 중심으로 연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²⁶⁾

가. 이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공하려는 마음이 많다.

고국을 떠나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인생 성공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마치 성

125) 김형석, “북미 디아스포라와 이민교회,” 총신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박용규 교수) 페이지 (2009), 8.

126) 본장에서 제시하는 이민자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본인이 이민생활을 15년 하면서 본 것과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에 나오는 야곱같이 비록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지만 타향에서는 인생을 멋지게 성공하고 금의환향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다.

사실 외국에서는 의지할 사람이나 환경이 거의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결국 이민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민의 땅에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한다.

나. 외국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민의 삶은 삶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가 많다. 짐박을 나가면서부터 언어와 문화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미생활을 하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서는 이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민을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민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더욱 신앙적으로 깊어지게 된다.

다. 인종 차별에서 오는 힘든 과정을 신앙심으로 극복하려 한다.

이민의 삶은 다른 민족들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민자의 삶이 힘든 것은 소수의 그룹에 속해서 살아야 하기에 어느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 색깔이 달라서 오는 차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문화가 달라서 겪게 되는 힘든 일들이 있다. 한국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음식문제가 있는데 마늘냄새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힘든 삶을 신앙심으로 극복하고자 교회를 찾게 된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민의 삶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사람들은 이민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엘리트 그룹에 속했는데 이민자의 삶에는 한국의 경력들이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등감까지 느끼게 된다. 이민교회는 대형교회보다는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 가끔은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민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마. 이민자로서 주류 사회로의 적응과 편입을 위해서이다.¹²⁷⁾

이민자들은 언제나 소수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소망은 자신들이나 아니면 2세인 자녀들 때에는 이 사회의 중심에서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미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을 싫어하는 중동 나라들은 이유 없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증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 이유로서 미국 사회에 빨리 동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변두리 이민자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에 편입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127) 이 부분은 논문 지도교수이신 김선일 교수님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바.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외국에서 삶은 정보가 늘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일기예보를 듣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기변화에 준비를 못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이곳 달라스는 겨울에 기후의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겨울에 갑자기 눈이 오면 일 년에 한두 번은 휴교령이 내려진다. 이 휴교령은 눈 온 날 아침 TV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 그런데 한인들은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휴교령이 내려진 것도 모르고 힘들게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서야 휴교인 것을 알 때가 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도움들을 교회나 교인들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민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정보는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취업문제, 아이들 진학문제, 병원치료 문제, 인생문제 등 이민교회에서는 서로가 가진 공통의 어려움들이기에 이민을 먼저 온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민자들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성도들의 교회를 찾는 이유들을 잘 인식하고 연구하여 목회에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목회를 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이상에서 연구한 바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이민 사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효과적인 목회가 될 것인가를 연구한다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 이민교회에 효과적인 목회전략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듯이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목회사역의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서 이민교회 목회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소그룹 사역임

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가 교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소그룹이 있다면 성도들이 그 소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미주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대다수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이곳으로 유학이나 이민으로 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시다. 물론 최근에는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인 1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안수 받은 목사이다.

그래서 담임목사님들이 한국적인 의식과 목회방법으로 이민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이민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다. 어떤 때는 지극히 한국적인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지극히 미국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이민자들은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 오던 그해에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민자 교인들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이민목회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제 2 절 미국교회 소그룹과 한인 이민교회 소그룹의 관계 연구

이민교회 사역에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것을 목회자가 인식했다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실시하는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민목회는 한국교회들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교회처럼 할 수도 없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목회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에 소그룹 사역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역현장을 이해하고 이민교회에 접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공통점

가.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있다.

현대교회들은 어느 때보다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소그룹 사역을 단순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모두가 소그룹 사역이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교회들은 확신한다.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며 평신도들이 더욱 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확신한다.

우리는 목장사역(Cell Ministry)이야말로 성서적 요구이며 사회 문화적 요구라고 믿는다. 그것은 목장사역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길이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장교회의 정착과 확장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효과적 성취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장 사역의 열매는 변화된 인격들과 목장교회의 재생산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목장 사역에서의 헌신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요 사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 목장사역에 헌신할 때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¹²⁸⁾

나. 그룹원의 숫자가 비슷하다. 모임의 규모는 대부분 약 10명 정도이다.

월로우크릭교회는 그룹의 크기를 평균 8명으로 정하고 있다¹²⁹⁾. 가능하면 10명이 넘으면 소그룹을 분가한다. 지구촌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교회라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목장교회라 칭할 것이다. 지구촌교회의 목장교회의 모임 수는 7명~12명¹³⁰⁾으로 구성되어있다.

128)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목장교회 사이트 (<http://www.jiguchon.org>)

129)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337.

130)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목장교회 사이트

다. 소그룹 모임의 형태와 횟수 그리고 시간도 비슷하다.

모임의 횟수는 기본적으로 매주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경우와 사역이 있을 때는 모임이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모임은 주로 교제와 양육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교안이나 주제를 가지고 리더의 인도로 모임을 갖는다.

2.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차이점

소그룹 리더들의 자질과 그룹원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교회는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반면에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에 비해서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 사역의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모임의 내용이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십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한국교회의 소그룹은 구성원이 청중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인도자의 일방적인 리더를 받아서 토론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¹³¹⁾

그러나 미국교회의 소그룹은 그 리더가 준목회자라 할 정도로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라는 것과 인도자의 일방적인 짜맞추기식 토론이나 모임이 아니라 인도자는 방향만 설정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신학자들은 소그룹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그 특징을 규모뿐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¹³²⁾ 왜냐하면 소그룹을 단지 구성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붙여진다면 많은 경우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김선일 교수는 “제2/3 세계권에서 이루어지는 셀그룹 운동은 ‘소그룹’(small group)으로 보기보다는 소규모 청중(small audience)이다.”고 말한다.¹³³⁾ 이 말은 소그룹이라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소그룹을 목회에 적용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청중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131)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화와 전도,” 59.

132)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화와 전도,” 59.

133)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화와 전도,” 59.

타율적인 사람들을 자율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될 때 소그룹은 큰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제 6 장

소그룹 사역을 통한 달라스 총현장로교회 성장 연구

지금까지 이민 한인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소그룹 사역이 교회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어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자면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와 또한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 그리고 소그룹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확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앞에서 연구(1장~5장까지)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지를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총현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달라스 총현장로교회¹³⁴⁾ 분석

본인은 총현장로교회를 지난 5년째 담임목회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소그룹 사역을 토대로 해서 총현장로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1. 달라스 지역 한인사회 분석

총현장로교회가 위치해 있는 텍사스의 달라스는 여름에는 10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로 유명하다. 그리고 텍사스는 석유가 많이 나와서 석유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목장들이 많아서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텍사스에는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길을 다닐 것이라 상상하기도 한다.

134) 달라스 총현장로교회를 이하에서는 총현장로교회로 칭한다.

그러나 텍사스 그 중에서도 달라스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도시이며, 미국 전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것이 미국의 주요 신문과 TV뉴스에서 2013년 연말에 보도하였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다른 주나 도시에 비해서 많고 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인들도 다른 주에서 많이 이주해 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좋은 것은 텍사스는 교육의 도시로 유명하다. 그러면서 학비는 다른 주에 비해서 저렴함으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지이기도 하다.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공식적인 텍사스 한인 인구는 6만 7,7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¹³⁵⁾. 이는 10년 전 집계된 4만 5,571명에 비해 2만 2,169명이 증가된 수치다. 그러나 인구센서스에 참가하지 않은 한인들의 숫자를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1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말한다.

달라스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약 150개의 크고 작은 한인교회들이 있다. 몇몇 대형교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100명 내의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다. 달라스 지역의 교회들은 한국이나 타주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침례교파의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나 장로교파가 많은데 이곳만은 예외이다. 침례교파의 교회들이 장로교파보다 더 많다. 이곳이 미국 남침례교단의 본산지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곳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주로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민을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

달라스의 이민자들을 분류해보면, 오래된 분들은 이곳에 오신지 30년이 넘으셨고, 보통은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곳의 한인 사회를 이끌고 있다.

135) “텍사스 한인 인구,” *News Korea* (달라스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2011년 6월 3일)
 “한인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단연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는 45만 1,892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0년간의 증가율도 30.6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후 순위는 뉴욕 14만 994명, 뉴저지 9만 3,679명, 버지니아 7만 577명, 텍사스 6만 7,750명 순이다.”

2. 충현장로교회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충현장로교회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달라스시에 위치해 있다. 이 교회는 설립된 지가 24년이 된 개척교회가 아닌 기성교회라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한국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신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 교회의 지난 연혁을 살펴보면 순탄치 않은 교회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24년간 일곱 명의 담임목사가 거쳐 간 교회이다. 평균을 해보면 한 목사가 3년 정도 밖에 목회를 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겪는 아픔을 이 교회도 겪었다.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다.

본인이 부임하던 2009년도에는 충현장로교회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한다. 담임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의 갈등으로 부임한지 2년 만에 사임을 하시고 약 6개월 동안 담임목사가 공석이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20년을 교회를 섬겨 오시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소천 하시게 되어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어려운 시기였다. 기존의 교인들은 많이 교회를 떠난 상태였고 남아 있는 교인들은 의욕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본인이 부임하는 첫 주일예배 출석 인원은 장년이 43명 정도였다. 장년교인의 대다수는 60세가 넘는 노년들이였다. 주일학교는 유초등부가 10명 정도, 중고등부는 3명 정도였다. 그래서 유초등부는 사역자가 있었지만 중고등부는 사역자도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재정 또한 심히 어려운 때였다. 목회자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기가 힘들어 때가 많았다.

그러나 예배당 건물은 참으로 아름답고 넓은 교회였다. 본당의 크기는 500석 좌석이 있을 정도로 크고, 교육관에 있는 각 주일학교 예배실도 크고 넓었다. 심지어 체육관은 농구 코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이민교회에서 중요한 주차장 또한 건물 쪽에 150대 이상의 주차장과 교회 앞에 약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교회의 외형은 어느 교회보다 잘 준비가 된 교회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4년을 열심히 목회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수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부흥을 하였다. 현재 주일 출석 교인이 약 100명 정도이고, 주일 학교는 유초등부가 25명 정도, 중고등부는 15명 정도 모이고 있다.

제직으로 장로 (시무장로 3명, 은퇴장로 1명) 안수집사 (시무 1명, 협동 3명) 권사 (시무 7명, 은퇴 7명, 협동 3명) 서리집사 (남 19명, 여 28명)이다.

구역모임은 2009년 부임 당시에는 소그룹 구역모임이 4개 구역이었는데 현재는 11개 구역으로 확장되었다.

3. 충현장로교회의 당면 과제

충현장로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때에 어떤 목회적 전략으로 교회를 목회해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고민하면서 본 논문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현재 충현장로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목회전략은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확신을 한다.

지난 4년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인도해 왔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성장하리라 확신한다. 물론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에 내재해 있음을 본다. 기존교인들과 최근 새로 들어온 교인들과의 연합문제와 기득권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서 충현장로교회가 성장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사역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논문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목회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라 확신한다. 본인이 논문의 주제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 방안”로 택한 동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사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회의 소그룹 모임으로 구역조직이 있으나 그 생명력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현장로교회가 새로워지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소그룹 모임에 다시금 물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업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역모임의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

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나. 지금까지 부흥을 위한 전략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총현장로교회 연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들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그 전략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전략들이 잘못되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참여가 적었기에 지속적인 사역이 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본인은 진단을 한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담임목사이지만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는 것은 담임목사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성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소그룹 사역은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에서 사역하는 전략임으로 이전의 방법들과 비교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확신한다.

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분명한 확신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에 성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소그룹 사역은 단회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전략이다. 먼저 소그룹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들이 훈련되고 세워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인들은 훈련되고 성장해 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인들은 접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을 제시할 때 교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관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교인들을 적극적인 협력자로 끌어들이자면 체계적이고 변함없는 훈련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라. 이민사회에 도전과 희망을 주는 교회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민교회들에게 교회부흥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주고자 함이 충현장로교회의 당면과제이다. 24년이란 교회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사실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충현장로교회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

지치고 피곤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교회만이 이시대의 희망이고 위로와 소망의 장소임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간절하다.

제 2 절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사역 활성화 방안

1. 교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가. 주일예배 설교를 통한 교육

목회자의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교인들을 신앙 교육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시간에 전해지는 목사의 설교말씀만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교회사역에 교육과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본인은 충현장로교회에서 올해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소그룹 사역이 성경적이며,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임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바 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다시금 지원자들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7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

- 1)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
- 2)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 3) 훈련된 리더가 있는 교회
- 4) 소그룹이 분가하는 교회
- 5) 새가족이 정착하는 교회
- 6) 새가족을 섬기는 바나바가 있는 교회
- 7) 전도전략이 있는 교회

나. 세미나를 통한 소그룹 사역 교육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중요성과 그 전략적인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흥전략 세미나'¹³⁶⁾를 실시했다. 주일 점심식사 후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들 30명을 대상으로 8주 과정으로 실시했다. '소그룹 사역을 통한 부흥전략 세미나' 커리큘럼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6) 부흥전략 세미나는 본인이 충현장로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2월~4월(8주간)까지 매주일 오후 2시~3시30분에 실시하였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통한 부흥전략 세미나 커리큘럼	
<p>제1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흥전략이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적인 파도타기 2. 부흥전략 세미나의 목적 3.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부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나. 건강한 소그룹이란? 다. 소그룹 사역이 주는 유익과 목적 라. 왜 소그룹 목회여야 하는가? <p>제2강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 철학 공유하기 2. 소그룹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경적 이유 나. 목회적 이유 다. 시대적 이유 3.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생산 4. 소그룹이 성공하려면? <p>제3강 사도행전 교회의 소그룹 사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도행전 교회 소그룹의 다섯가지 주요사역 2. 소그룹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 3. 소그룹 리더의 역할과 사명 <p>제4강 소그룹 부흥의 동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도 2. 말씀 묵상 3. 간증 및 전도 4. 바나바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바나바사역의 필요성과 목적 나. 바나바 사역의 성경적 근거 다. 바나바 사역의 효과 라. 바나바 사역의 실제 	<p>제5강 새가족 사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가족은 환영이 필요하다. 2. 새가족은 소개가 필요하다. 3. 새가족은 이해가 필요하다. 4. 새가족 양육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새가족에 대한 투자 나. 새가족 관리체계 다. 새가족 양육 커리큘럼 라. 새가족 양육 위원 <p>제6강 새가족이 정착하는 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가족 정착에 대한 잘못된 이해 2. 새가족들의 특징 이해 3. 새가족의 필요를 채우라. 4. 관심과 사랑이 정착의 열쇠 5. 새가족 사역자의 마음자세 6. 새가족 사역과 바나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p>제7강 관계전도 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도란 무엇인가? 2. 태신자 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태신자 전도의 원리 나. 어떻게 태신자를 걱정하는가? 다. 태신자 전도의 단계 라. 태신자 열매 맺기 <p>제8강 긍정적 상호작용(Empow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작용의 중요성 2. 물통과 국자 이론 3.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방식의 성향 4. 칭찬의 능력 5. 부흥을 위한 헌신

<표 6> 소그룹 사역을 위한 부흥전략 세미나 커리큘럼

부흥전략 세미나의 제1강과 제4강 강의안¹³⁷⁾(학생용)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세미나 강의안 전문을 첨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두 개만 샘플로 첨부한다.

137) 김일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흥전략 세미나,”충현장로교회, 2010년.

2.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전략

충현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교육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충현장로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들이 훈련되고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리더 훈련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 소그룹 리더 발굴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리더에게 있다.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소그룹 사역은 실패할 것이다. 소그룹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소그룹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달려 있다. 단지 교회의 조직을 소그룹 형태로 나누어 놓았다고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와 부흥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교육된 성도들 가운데서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헌신자들을 발굴해야 한다. 리더를 찾아내는 것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임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서 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선별하고 자원을 받아낸다. 무슨 일이든지 자원을 해야 책임감이 있게 되고 성실하게 사명을 다하게 된다.

소그룹 리더를 선택할 때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세우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리더를 선택할 때 너무 무리한 방법은 삼가는 것이 좋다. 리더로 세워야 할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와 핵심 멤버들을 먼저 존중하고 훈련해야 하며, 제일 먼저 훈련시켜야 하며 성도들 중에서 충성되고 섬김과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는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리더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의사 없이 강제로 임명해서 안 된다.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분별해서 리더로 선택해야 한다.

리더 교육과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된 리더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훈련에 임하는가는 앞으로의 교육과 사역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리더 훈련을 일반적인 성경공부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을 한 사람과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자와 동역하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리더 훈련은 교회의 일꾼 양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 훈련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임을 기억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 훈련의 시작도 기본도 마침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기도 없이는 리더 훈련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소그룹 리더로서 세워질 사람들의 몇 가지 자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

소그룹의 생명은 리더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의 첫째 자질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이 분명한 성도가 아니면 결코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신앙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앙관의 기초위에 세워져 간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소그룹 리더로 세워질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와 소그룹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만일 목사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소그룹은 서쪽으로 가려 한다면 분열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3) 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성도

소그룹 리더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야 한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다른 성도들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소그룹 리더에게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그룹원들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인도를 부담으로 여기고 그룹원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김에 헌신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룹원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참고 기다려 주면 어느 날 주님이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에 참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고, 자녀라 여기면서 섬겨야 한다.

나.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

이상의 자질을 가진 리더들이 세워졌다면 다음 단계로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 한다. 리더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단계별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개발해야만 한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교육으로는 효과가 없다. 또한 단회적인 교육으로도 안 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만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들이 양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신된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번호	과 목	교육 목적
1	리더의 사명	*리더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리더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지 교육한다.
2	소그룹인도법	*소그룹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는 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실습으로 교육.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겪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	성경공부인도	*리더는 가르치는 은사도 개발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성경공부에서 그룹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법을 교육한다.
4	중보기도훈련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하는 소그룹은 건강하다. *그룹원들의 기도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
5	리더십세미나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도 리더십은 꼭 필요하다. *성경적 리더십을 가르친다.
6	리더의 마음	*소그룹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과도 같다. *그룹원들을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 지를 교육한다.
7	상담기술교육	*그룹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개인 상담과 가정 상담을 하는 법을 가르친다. 듣기 훈련이 중요하다.
8	예 비 리 더	*그룹원 중에서 예비리더를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사명이다. *소그룹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표 7 충현장로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 커리큘럼¹³⁸⁾>

리더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좋은 교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좋은 필독서를 리더들에게 읽게 함으로 교육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 과목 별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리더들이 필독서를 미리 읽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참석하는 리더들도 강의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에 필요한 필독서들을 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38) 이 커리큘럼은 충현장로교회가 새롭게 리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로서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번호	과 목	필 독 서
1	리더의 사명	* 좋은 사역자(Bill Hybels, 두란노) *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옥한흠, 국제제자훈련원)
2	소그룹인도법	* 제자입니까?(Juan Carlos Ortiz, 두란노) *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Bill Donahue, 국제제자훈련원)
3	성경공부인도	*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최영기, 두란노) *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Bill Donahue, 국제제자훈련원)
4	중보기도훈련	* 새들백교회 이야기(Rick Warren, 디모테) *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정필도, 두란노)
5	리더십세미나	* 리더십(Bill Hybels, 두란노) *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김성곤, NCD)
6	리더의 마음	*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하용조, 두란노) * 목자의 심장을 가져라(진 밌스, 국제제자훈련원)
7	상담기술교육	*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유정옥, 소중한 사람들) * 그 청년 바보 의사(안수현, 아름다운 사람들)
8	예 비 리더	* 팀으로 이끄는 교회(wayne Cordeiro, 프리셋트) *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Stephen R. Covey, 김영사)

<표 8 중현장로교회 소그룹 리더 훈련 필독서>

이상의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떠한 교제를 가지고 얼마의 기간 동안 가르칠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자.

(1) 리더의 사명감

(가) 훈련목적

리더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나) 훈련내용

리더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지 교육한다. 디모테후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교육한다.

*교육내용: 사명이란? 누가 사명자인가? 모세의 소명, 바울의 소명, 이사야의 소명, 베드로의 소명(요21장), 나의 사명 찾기 등.

(2) 소그룹 인도법

(가) 훈련목적

소그룹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는 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실습으로 교육함으로써 리더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겪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훈련내용

*교육내용: 소그룹을 재미있게 인도하는 법, 그룹원과 친해지는 법, 대화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법, 갈등해소법, 처음 참석한 사람 관리법 등.

(3) 성경공부 인도법

(가) 훈련목적

리더에게 성경공부 인도법을 가르침으로 그룹원들이 소그룹 모임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나) 훈련내용

*교육내용: 질문 만들기, 그룹원 참여시키는 법, 귀납적 성경공부(1,2,3,4), Q.T 훈련 등.

(4) 중보기도 훈련

(가) 훈련목적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소그룹은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간다. 리더에게 그룹원들의 기도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

(나) 훈련내용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만 할 수 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사역의 힘도 기도에서 오고, 사역의 성장과 부흥도 기도에서 온다.

*교육내용: 기도해야 할 이유, 중보기도란?, 중보기도의 능력, 기도회 인도법,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법, 중보기도와 교회성장, 중보기도의 생활화 등.

(5) 리더십 세미나

(가) 훈련목적

소그룹을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리더들에게 세상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친다.

(나) 훈련내용

리더는 앞서 가는 사람이다. 또한 리더는 앞을 보고 길을 찾아 주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마음과 눈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다.

*교육내용: 성경적 리더십, 예수님이 가르치신 리더십, 섬기는 자가 큰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소그룹에서의 리더십 등.

(6) 리더의 마음

(가) 훈련목적

소그룹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과도 같다. 리더는 그룹원들을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지를 교육한다.

(나) 훈련내용

평신도를 사역자로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훈련이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이 사도들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듯이 교회에서 세운 리더들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룹원들을 섬기도록 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리더들을 섬기는 만큼 리더들도 헌신할 것이다.

*교육내용: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사명, 목회자의 헌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자의 길, 시편23편 묵상 등.

(7) 상담기술 교육

(가) 훈련목적

그룹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나) 훈련내용

소그룹 리더에게 상담은 가장 필수적인 사역일 것이다. 그룹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질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리더들이 소그룹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상담 기술을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내용: 낙태문제, 그리스도인과 세금, 헌금, 방언, 신앙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교육, 취미생활, 인간관계, 정치와 신앙문제 등.

(8) 예비 리더 세우기

(가) 훈련목적

그룹원 중에서 예비리더를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사명이다. 소그룹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것임을 가르친다.

(나) 훈련내용

소그룹에서 예비 리더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처음에는 마땅한 후보자 없을 수 있으나 리더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비 리더를 찾아야 하고 세워야 한다. 예비 리더를 훈련하는 것은 리더가 자신의 사역을 나누는 일이다.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소그룹 인도하는 것들을 나눈다. 결국에는 그룹원 까지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내용: 예비 리더를 위한 기도, 예비 리더 찾는 방법, 예비 리더 훈련, 예비 리더 세우기, 사역 나누기, 소그룹 나누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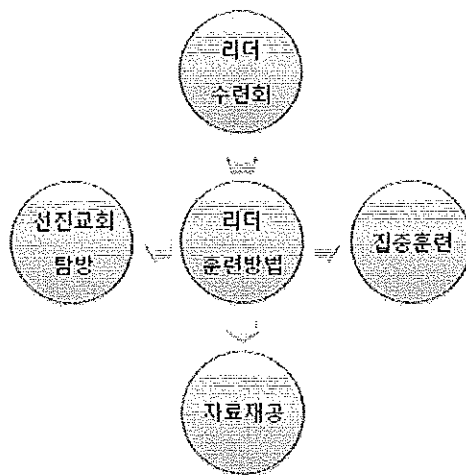
다. 소그룹 리더 훈련 방법

리더들을 훈련할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리더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준비가 잘된 커리큘럼이라도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리더 훈련은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식 교육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적인 사역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리더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이 아니라 리더들 각자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훈련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나눔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담임목사가 직접 교육하며 소그룹 리더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거나 겪게 될 일들을 중심으로 매주 좋은 점과 힘든 점들을 나누면서 리더로서 훈련되어 가도록 한다.

충현장로교회에서는 201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예배 후에 1시간씩 소그룹 리더와 예비 리더들을 훈련한다는 광고와 함께 소그룹 사역을 위한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물론 기존에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 분들과 목회자가 판단하기에 리더로서 훈련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미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림 7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방법들>

총현장로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실전을 통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목회자가 지속적이고 분명한 사명감으로 훈련을 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

(1) 리더 수련회

일년에 두 차례의 수련회를 통해서 리더들간의 단합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리더들의 수고를 격려한다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시작할 때 수련회를 가진다).

(2) 리더 집중훈련

수요일 저녁에 있는 리더 교육시간 외에 일년에 두 차례의 리더 집중훈련을 한다. 집중훈련은 두 가지로 진행한다. 하나는 리더 세미나 그리고 간증자초청(소그룹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를 초청)을 한다.

(3) 리더 훈련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소그룹과 리더쉽에 대한 책자들을 준비해서 보급하고 소그룹 세미나 자료 테이프들을 제공 한다.

(4) 선진교회 탐방

리더들이 한 교회만 섬기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리더들의 시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소그룹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해서 직접 보여주는 현장체험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소그룹 리더들에게 공식적인 교회의 권위를 부여한다.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성도들이 리더들을 리더로 인정하고 순종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에게 사역자의 권위가 주어져야 한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하고 순종해 주듯이 소그룹 리더들을 목회자와 같이 인정해 줄 때 그 소그룹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그룹 리더들에게 공개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리더 자신에게도 중요하다. 단지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인식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워짐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

다. 소그룹 리더와 그룹원들을 공식적으로 조직해 준다.

소그룹을 정할 때에 겪는 어려움 중에는 교회가 정해준 소그룹 말고 자신이 원하는 소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은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꼭 일부의 불평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을 해 주면 사람들은 대부분 순종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꼭 그룹을 바꾸길 원하는 분들은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가 상의한 후에 결정하면 된다.

라. 소그룹 모임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모임의 내용들을 소개한다.

소그룹으로 모임 때 사람들은 리더가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라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리더의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소그룹의 모임 날짜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주면 리더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모임의 순서나 내용 또한 리더가 알아서 한다는 이미지 보다는 교회가 정해준 틀 안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이미지를 전교인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2. 소그룹 사역의 첫 모임

가. 소그룹 첫 모임 장소와 시간을 후보에 공고한다.

소그룹 첫 모임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룹원들에게 기대감과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해야 한다.

나. 소그룹 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마치도록 한다.

현대인들에게 시간 약속은 기본이며 모든 신뢰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 역시 시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그룹의 특성상 모임은 유동성을 가지는 지혜를 리더들은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 소그룹 모임은 교회가 정한 형식을 지켜서 진행한다.

이미 본 논문 제 4 장 교회 내의 소그룹 개발을 위한 연구, 제 2 절 교회 내 소그룹 사역을 위한 단계별 전략 중에서 2. 평신도 소그룹 사역자 세우기에서 자세하게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리더가 인도해야 할지를 연구해 놓았다. 참조하면 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더욱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기까지 하다. 목회는 끝없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삶과 더불어하는 사역이기에 바른 목회와 건강한 목회의 방법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고 정의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성공하는 목회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그룹 사역이 목회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소그룹 사역을 연구하고 목회사역에 적용하면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라는 믿음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는 소그룹사역이 가장 성경적이며 또한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은 어느 나라에서나 교회가 위치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은 발휘하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민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민교회 내에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에서의 예배나 사역은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사역들과 모임들은 훈련된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들은 서로서로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적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민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짐으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1.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민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한다.

왜 소그룹 사역이 이민교회에 꼭 필요한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해법이 소그룹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연구하는 동안 더욱 간절해지는 바람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민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민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는 직접 사역을 해보기 전에는 감히 짐작조차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또한 상상조차 못한 의외의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민 목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지의 선교지보다도 힘든 사역지가 이민교회 목회라고까지 말을 한다.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공감이 된다.

그러나 이민교회가 많은 어려운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또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외국인들과의 삶속에서 한국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서 서로를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점들은 이민자들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교회가 이민자들의 복잡하고 힘든 삶과 외롭고 답답한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소그룹 사역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민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하리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을 단지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고 정착시킨다면 분명히 목회자와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논문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교회의 부흥은 수적

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을 꿈꾼다.

2.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가 목회의 동역자로 성숙하기를 기대한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 이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지상명령(마28:18-20)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에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일이 중심이었다.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고 사역자도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사역자로 만드는 것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평신도들을 목회자의 목회대상이고 일방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을 하게 되면 평신도들은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목회자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자신들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를 위한 동역자들로 인식해야 한다. 평신도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목회는 목회자 혼자서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쉽 없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평신도들을 목회자의 동역자로 참여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경적인 건강한 목회사역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하고 목회 동역자로 세우는 소그룹 사역이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더욱 유능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공과 직업에서 얻은 경험들을 전문가로서 교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목회자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유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음향이나 영상 그리고

건축 분야는 평신도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런데 목회자란 이유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면 비효율적이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의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워갈 것을 기대한다.

3. 소그룹 사역에 대한 발전적 제안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은, “이민교회에 소그룹 사역이 건강하게 잘 정착하게 위해서 어떤 점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민교회 소그룹 사역 정착에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들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이었다. 목회자가 소그룹 사역에 대한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다가 도리어 목회에 위기를 경험하거나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지 일부의 말이 아니라 너무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 사역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는 교회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민교회에 소그룹 사역을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와 교회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교회의 고착화된 조직을 실질적인 사역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한다.

교단마다 특징적인 조직들이 오랜 전통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되어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로교단의 당회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참으로 교회발전에 중요하고 중심이었는데는 모르지만 현대교회에서는 당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당회는 명예와 자기 기득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당회 조직으로서는 어떤 사역을 한다 해도 교회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고착화된 조직을 사역 중심의 조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교회 개혁을 의미한다. 어떤 조직이든지 기득권자들은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보장된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민교회에서 당회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더욱 힘들 수 있다. 이들에게는 당회원이란 직분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확신한다면 지금까지 정통적인 직분중심의 조직을 사역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사명을 가질 때까지 준비하고 교육하며 일꾼들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포기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그룹 사역이 교회에 정착이 될 것이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리라 확신한다.

둘째, 지식 중심의 평신도 훈련을 헌신과 사역 중심의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많은 교회가 평신도 제자훈련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성경공부일 뿐이다. 또한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예수 제자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장로나 권사가 되자면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훈련으로는 결코 사명자를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헌신된 삶을 살수도 없을 것이다. 성경공부를 해서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하는 정도의 훈련을 넘어서 실질적인 헌신과 사역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몇몇 소그룹 사역에 성공한 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 자신들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들을 소개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미국 남부 휴스톤에 있는 서울침례교회(담임 최영기목사)와 부산에 있는 풍성한교회(담임 김성곤목사)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셋째,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끊임 없는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목회자들의 교만을 지적한 것이다. 목회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한

다. 어제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일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 과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주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가장 변화하지 않는 단체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는 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발버둥 치는데 교회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와 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세상의 사업가나 정치인들의 사명이 아니라 부름 받은 목회자의 몫이다.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듯이 목회자들 또한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자기를 개발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일 것이다.

소그룹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목회자의 소그룹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인식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이론적인 체계를 확실하게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목회자 자신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길 밖에 없다.

목회자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에 자신 또한 변화하는 세계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도들을 세상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목회현장에서 평신도들을 건강하고 능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이루는 목회전략으로 소그룹 사역을 선택하고 싶다. 소그룹 사역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 양성에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땀을 흘려야 한다. 리더를 세우는 일에는 시간과 정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어야 함을 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는데 3년이 넘게 걸리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 훈련은 참된 제자훈련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은 소그룹 리더로는 결코 소그룹 사역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부흥을 위한 소그룹 사역자들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목회자는 감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감을 기다리듯 일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소그룹 사역을 위

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목회자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훈련되고 양육된 평신도들이 진정한 평신도 동역자가 될 것이다. 외부에서 온 돈 많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비전을 이루어가려는 쉬운 방법은 도리어 목회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평신도 동역자들은 목회자 자신이 직접 훈련하고 양육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좋은 배와 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와 그물보다 중요한 것은 훈련된 어부가 있어야 한다. 오늘 교회들은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배와 그물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영적인 고기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훈련된 어부들이 없기 때문이다.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훈련된 영적인 어부들을 양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을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베드로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에서는 부흥전략 세미나의 제1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흥전략이란? 강의안을 소개한다.

제 1 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흥전략이란?

I. 영적인 파도타기

이번 세미나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의 영적인 파도를 타는 법을 연구하는 세미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영적인 파도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

1. 누구도 () 를 일으킬 수 없다.
2. 파도는 오직 () 일으키신다.
3. 단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탈 뿐이다.
파도가 없는 날은 파도타기를 못하는 날이다.

** 영적인 파도타기의 원리

1. 영적인 파도를 ()
2. 영적인 통찰력과 () 필요하다.
3. 영적인 () 필요하다.
4. 영적인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즐긴다.

II. 부흥전략 세미나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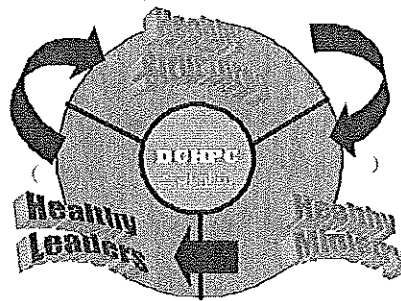
첫째는 성경적 () 상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둘째는 교회 내에 () 모임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발된 소그룹을 통해서 () 배출하는 것이다.

넷째는 건강한 소그룹을 양성함으로써 ()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이다.

건강한 부흥을 위한 세가지 전략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들이 건강안가?
2. () 평신도들이 있는가?
3. 새가족들이 () 있는가?
4. 전도를 위한 분명한 () 있는가?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이 아닌 교회의 ()이다.

연대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건강함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입니다.

연대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영교회들이 비만에 걸려있습니다.
비만한 교회의 특징은 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부흥전략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교회에는 구역, 사역팀 등 여러 형태의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원활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I. 건강한 소그룹은?

1. () - 훈련되고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가 있다. (평신도 목회자)
2. () - 모임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3. () - 소그룹의 분명한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다.
(모임이 친교의 목적을 뛰어넘는 목적이 있다.)
4. () - 모든 소그룹원들이 소그룹 내에서 자신의 사역이 있다.
5. () - 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초대되고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석을 한다.

II. 소그룹 사역이 주는 유익과 목적

1. 뜨거운 ()가 이루어진다.
2. 신령한 ()를 회복한다.
3. 체계적인 ()을 돕는다.
4. 교회의 ()을 확장한다.
5. ()의 열매를 맺는다.

III. 왜 소그룹 목회여야 하는가?

1. 소그룹 정의

성경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그룹을 표현하고 있다.

정의 : () 교제 공동체를 의미한다.
 () 바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소그룹 중심교회는 = ()

1. () 하는 교회
2. () 있는 교회
3. ()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모든 교회는 끈임 없이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가야 한다.

월로우크릭교회	서울의 은누리교회
<p>소그룹을 정의 “공통의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그룹이며, 지정된 리더가 인도하는데, 리더는 영적 성장의 환경을 주도면밀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룹원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까지 돕는다.”</p> <p>소그룹을 위한 사명 선언문 “소수의 사람들(4명에서 10명)을 그룹 속에서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게 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한다.”</p>	<p>소그룹을 순모임이라 칭하며, 순모임은 단순한 성경공부나 교제 모임이 아니다.</p> <p>순모임은 나눔의 공동체이다. 순모임은 전도 공동체이다. 순모임은 치유 공동체이다. 순모임은 봉사 공동체이다.</p>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소그룹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달라스충현장로교회 (DCHPC)

소그룹 정의

1.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5-15명)의 모이기
2.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3.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4.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깨닫고,
5.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

그러므로 달라스충현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이란 바로 이 공동체의 정신이 실현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것이다.

2.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소그룹이란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소그룹은 구성원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힘이 있다.

I. 소그룹 자체가 ()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II. 소그룹 모임이 곧 ()이다.

- 가. 소그룹은 수단이 아니라 ()이다.
- 나. 소그룹은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다.
- 다. 소그룹은 교제 공동체가 아니라 () 공동체이다.
- 라. 소그룹은 일(Doing)이 아니라 ()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 마. 소그룹은 목회와 교회부흥의 ()이다.

소그룹이 교외에 유익한 8가지

첫째는 유연성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동성이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모임이 가능하다.

셋째는 포괄성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넷째는 인격적이다.

다섯째는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세포들이 분열하듯 소그룹은 쉽게 증가되어간다.

여섯째는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최소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제도적 교회에도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오늘 강의에서 기억할 점 -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그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회와 목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개정판. 서울: NCD, 2007.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현철. “관계 중심의 셀교회 성장.” *목회와 신학* (2000년 1월호): 86-93.
- 민경석. “이민생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46-70.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신 정. “소그룹을 통해 성경공부의 최대 참여를 유도한다.” *월간목회* (2005년 12월호): 88-95.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Called to Awaken the Laity)*. 개정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 이상명. “사도 바울, 로스앤젤레스에 가다: Paul’s Theology and Contextualization Theology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22-45.
- 이정익.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소그룹 지도자 양육.” *월간목회* (2005년 12월호): 72-79.
- 이재훈. “재미 한인사회 종교 실태 분석: 2008년 재미한인전국조사 중심.”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147-159.
- 이학준. “한인 이민 1세 교회 윤리의 비판과 재구성.” *이민신학논단 (The Journal of Immigrant Theology) 1* (2009): 83-102.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9.
- 하용조.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 한미준. *한국갤럽 리서치.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2. 번역 서적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Community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Gemeinsames Lehen)*.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Cordeiro, Wayne. *팀으로 이끄는 교회(Doing Church as a Team)*. 김경섭 역. 서울: 프리셉트, 2006.
- Covey, Stephen R., A. Roger Merrill, and Rebecca R. Merrill.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김경섭 역. 서울: 김영사, 1997.
- Donahue, Bill.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_____. *월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The Willow Creek Guide to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연선 역. 재판. 서울: 디모데, 2002.
- Donahue, Bill, and Greg Bowman.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 코칭 (Coaching Life-Changing Small Group Leaders)*.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Donahue, Bill,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_____.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Finzel, Hans. *리더십의 파워 (Empowered Leaders)*. 김재영 역. 서울: 디모데, 2000.
- George, Carl F. *다가오는 교회 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전의우 역. 서울: 요단, 1999.
- _____.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ICG, 1997.
- Icenogle, Gareth W.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개정판. 서울: SFC, 2007.
- Jones, Laurie Beth. *최고경영자 예수 (Jesus CEO)*. 송경근, 김홍섭 역. 서울: 한언,

1995.

- Khong, Lawrence. *사도적 셀교회 (The Apostolic Cell Church)*.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6.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The Church)*.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 Maxwell, John. *열매 맺는 지도자 (Be All You Can Be)*. 오연희 역. 서울: 두란노, 1991.
- Neibour, Jr., Ralph W. *셀목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장학일 역. 재판.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0.
- Nicholas, Ron, Steve Barker, Judy Johnson, Rob Malone, and Dong Whall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재판. 서울: IVP, 2001.
- Ortiz, Juan Carlos. *제자입니까? (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2002.
- Schwarz, Christian A., and Christof Shark.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Implementation guide to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준영. 오태균 역. 서울: NCD, 2000.
- Snyder, Howard.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기계 문명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구조는? (The Problem of Wineskins: Church Structure in Technological Age)*.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3. 인터넷 자료

- 오상철,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미국: 이민신학연구소 2012.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9606
-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목장교회 사이트 <http://www.jiguchon.org>
-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그룹과 소그룹의 상호관계.” *소그룹보물찾기* (2007년 1월호). <http://www.smallgroup.co.kr/small/index.htm>
- _____. “소그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소그룹 서약서.” *소그룹보물찾기* (2009년

1-2월호).

<http://www.smallgroup.co.kr/small/view.php?code=small&year=2009&month=01&idx=373>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acs/www/\(American Community Survey\)](http://www.census.gov/acs/www/(American%20Community%20Survey))

http://www.fkbckeller.org/_chboard/bbs/board.php?bo_table=m4_4&wr_id=61742&sf1=&stx=&st=wr_hit&sod=asc&sop=and&page=6

4. 사전 및 기타자료

Bible Works 5.0 software for Biblical Exegesis & Research, UBS Greek Dictionary.

Bible Works 5.0 software for Biblical Exegesis & Research, BDB Lexicon.

5. 강의안

김선일.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화와 전도 (Evangelism and Culture in a Korean Contex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2009.

김일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흥전략.” 달라스 증현장로교회 2010.

김형석. “북미 디아스포라와 이민교회.” 총신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박용규 교수) 페이퍼 (2009).

6. 신문

오상철, “한인 2세 이민교회 이탈 문제 조사.” *LA중앙일보* (2012년 6월 18일): 종교면.

채이석, 이상화. “소그룹 운동 현실 고려한 맞춤형 효과적.” *국민일보* (2006년 10월 17일).

“텍사스 한인 인구.” *News Korea* (달라스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2011년 6월 3일).

Vita of
Illsoo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Dallas ChoongHyun Presbyterian Church in USA

Personal Data:

Birth Date: April, 14 1966

Birth Place: Daegu,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Heenam Ha on 3rd of October , 1991.

(JooChan, JooEun, James Jooyoung)

Home Address: 923 St. Paul Dr. #155

Richardson, TX 75080

Phones: (214) 766-1797

Denominat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Reverend Oct., 1996 in Korea

Education:

B. A. Taeshin University, in Korea, 1992.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in Korea, 1995.

M. A. Talbot School of Theology, La Mirada, CA, 200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14.

Personal Experience:

Mar. 1988~Feb. 1990 SangMo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Mar. 1990~Mar. 1996 GaChang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Apr. 1996~June 1997 Odong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July 1997~Dec. 1999 WhangGeum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Jan. 2001~Jan. 2004	East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in USA
Jan. 2004~Nov. 2009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n USA
Dec. 2009~ Present	Dallas ChoongHyun Presbyterian Church in USA